

진모지구 영화세트장 유치 난관끝에 통과는 되었지만

영화사측 돌산평사리 산318-92 9918㎡ 2019년 2월 20일 소유권이전... 다가구주택 건축허가 받고 공사 중
추경 통과로 영화사측 내년 3월까지 세트장 건립 완료, 실제 영화촬영 내년부터 2021년말까지 진행할 계획

제 194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한 여수시 진모지구 영화세트장 지원사업 예산안, 그러나 고성과 몸싸움까지 진행되는 등 고초를 거듭했다.

오랜 논란과 언쟁 끝에 이뤄진 진모지구 영화세트장, 과연 여수시와 여수시민을 위해 어떤 이익이 따를 것인지 앞으로도 계속 논쟁의 여지가 남아있다.

시는 올해 초 영화사 빅스튜디오가 '명량' 후속 영화 '한산'과 '노랑' 등 2편을 여수에서 제작하겠다는 뜻을 밝히자 영화세트장 기반 시설을 마련하기로 하고 지난 4월 23일부터 5월 3일까지 계획된 제 192회 임시회(24일)에 제1회 추경 예산안으로 18억 원을 요청했으나 여결위에서 전액 삭감됐다.

6월 27일 권오봉 여수시장은 2분기 기자 간담회에서 영화세트장 건립의지를 밝혔다. 이유는 명품 감독의 '명량' 후속 영화 '한산'과 '노랑' 두 편을 여수에서 연속제작한 데 따르는 '여수 브랜드' 효과와 경제적 파급효과 때문이라고 했다.

또한 "비교적 소액의 지방비 부담으로도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을 내세우며 추경요구를 하겠다고 밝혔으며, 여수시는 제작사측과 협의를 마치고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시의회에 제출했다.

서완석 시의회의 의장은 SNS(페이북)를 통해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드러냈고 194회 임시회의 개회사를 통해 "영화세트장은 임시건물이라서 유지보수 및 철거비 부담 등 결과는 애물단지로 전락하는 사례가 많아 영화 세트장 효과만을 내세우기보다는 철저한 분석과 중장기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며 반대 의사를 내비침으로써 논란의 중심에 섰다.

22일 돌산읍 7개 자생단체장은 진모지구 영화세트장 건립 추진에 대한 긴급모임을 갖고 여수시의회 서완석 의장실을 방문했다.

영화세트장 건립은 돌산 우두리 쪽의 관광 발전이나 미래상 여수를 두고 보면 지속 가능한 관광의 밑거름이 될 수 있음을 주장하며 시의회 예산심의 통과를 추진해달라

는 목소리를 높였으며 서의장과의 회담은 약 1시간 50여분 동안 치열한 논쟁이 있었지만 의견을 좁히지는 못했다.

서의장은 영화사측이 지난 2월 20일 소유권 이전을 마친 돌산읍 평사리 산318-92 입야 9918㎡(약 3천여평)의 등기부등본을 내보이며 여수시가 먼저 서두르지 않아야 함을 거듭 강조했다. 임시적인 부분 활용에 만족하지 말고 좀 더 효과적 인 종합적인 개발 계획이 먼저 수립되어야 함을 여러차례 강조하며 예산 낭비를 초래하는 실수는 없어야 함을 주장했다.

돌산읍 7개 단체는 여수의 미래에 서의장에게 맡길 수 없다며 서의장 퇴진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어 서의장을 압박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영화 '명량' 후속작 세트장으로 조성 계획 중인 여수 진모지구는 영화제작사인 빅스튜디오가 한산대첩과 노랑대첩, 칠천전 등을 주제로 한산과 노랑의 촬영세트장을 진모지구 일원으로 선정하고 세트장 제작에는 73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예정이다. 제작사 측에서 55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세트장 시설을 갖추고, 여수시는 18억 원을 투입해 부지정리와 도로 개설 등 기반 시설 구축을 하는 것으로 협의했지만 시의회의 반대 때문에 부딪혀 난항을 겪다가 본회의에서 여수시가 상하수도 기반시설 지원비 3억원으로 최종확정됐다.

나머지 15억은 영화사측에서 부담하고 대신 3년 무상이었던 6만 6000㎡(2만평)을 3년 무상 후 2년

대포지역발전협의회, 유해물질 측정기 세워달라!

주승용부시장, 여수국가산단 유해물질 불법유출 철저한 조사 권시장, "주민건강권 생명권 면담하겠다"

여수대포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대포지역발전협의회는 "생명권과 건강권 지키기"를 위하여 여수시장, 전라남도지사, 환경부영산강유역환경청장과의 '대회의 시간'을 공문으로 요청했다.



▲대포지역 한도너터링

이번 대포지역 "생명권과 건강권 지키기" 면담 공문에 대하여 전라남도 동부지역본부(기후환경국) 민원담당자는 동부지역본부장과 먼저 상담을 하고 이후에 전라남도지사와의 면담을 권유했지만 대포지역발전협의회는 김 지사와의 직접 면담을 다시 요구한 상태다. 환경부영산강 환경청은 8월15일 이후 청장과의 면담을 약속해왔다.

또한 대포지역발전협의회는 주승용국회부의장과 서완석여수시의회를 만나 '대회의 시간'을 갖고 대포지역이 여수국가산단과 약 800m 거리로 산도 없이 바로 뿔러있음을 강조했다. 여수산단에서 1994년도 독극물이 배출되어 7명 사망되었던 과거를 예를 들기도 하며 피해보상금이 아닌 생명을 지키기 위한 유해물질측정기를 대포지역과 여수산단 사이에 세워줄 것을 요구했다.

주승용국회부의장은 "대포지역 주민들이 보상을 원하기 보다는 유해물질 측정기를 세워달라는 요구에 공감을 한다. 법 개정 외에도 환경부와 관계부처와 협력해 기업 오너들이 스스로 자각하여 개선하고 반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여수시의장이 서의장은 대포지역발전협의회가 한 달에 두 번 정기적으로 대포지역 환경모니터링을 하고 있다는 등의 내용으로 2시간 정도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한편, 대포지역 관계자는 여수시는 지역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유해물질측정기 설치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다는 뜻과 함께 8월 중순 경 대포지역발전협의회와의 면담을 성사시키겠다는 약속을 전했다고 밝혔다.

최항란기자. 사진 김영주기자

근대5종 발전 위한 '고 김대범 장학금' 전달

고 김대범 선수, 2010년 8월 제 1회 청소년올림픽 싱가포르 스포츠스쿨 금메달 획득
비인기 스포츠 종목 선수적극 지원 유망주들 목표 의식 높이고, 직접 후원 문화 확대되길

한국 비인기 스포츠 종목 선수들에게도 적극적인 국가의 지원이 있길 바라는 뜻과 함께 우리나라 근대5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고 김대범 장학금' 기증식이 지난달 31일 여수 디오션론도 세미나실에서 있었다.

근대5종 선수로 젊은 나이에 불의의 사고로 사망한 고 김대범(26세) 선수의 부모인 김영선, 한영애 씨가 마련한 장학금 기증식이었다.

고 김대범 선수는 여수에서 태어나 문수중학교를 다녔으며 전남체고, 한체대를 거쳐 삼우체육부대, 국가대표 선수로 활약하다가 전남



도청 소속 실업팀 선수를 역임했다.

고 김 선수의 아버지인 김영선씨는 "아들이 먼 길 떠난 지 1년 달이 됐다. 아들이 운동하던 시절 가장 현상상 해외경기 출전을 포기했던

적이 많았다"며 아들의 퇴직금을 근대5종의 발전을 위해 쓰여지길 바란다고 전달의 뜻과 함께 "스포츠 산업의 진정한 선진화 및 발전을 위하고 세계속의 대한민국 스포츠의 위상을 알리기 위한 유망주들의 목표 의식이 높아지고 직접 후원의 문화도 확대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는 바람도 밝혔다.

근대5종은 1912년 스톡홀름올림픽에 채택됐는데 승마, 펜싱, 사격,



수영, 크로스컨트리 5개 종목으로 이루어진 경기 종목으로 고대 올림픽에서 하던 고대 5종을 계승한 스포츠이다.

다섯 가지 경기를 하루에 다 끝내야 하므로 강인한 체력이 요구되는데, 흔히 근대 5종 선수를 만드는 스포츠맨으로 부르는 이유이다.

그러나 근대5종은 비인기 종목으로 후원이 부족하여 선수들에게 지

원이 원활하지 않는 스포츠다.

고 김대범 선수가 2010년 8월 제 1회 청소년올림픽 싱가포르 스포츠스쿨에서 금메달을 획득했을 때 국내 언론에서는 '기적같은 금메달'이라고 보도를 했다. 개인전 우승은 성인용 통틀어 김대범선수가 처음이었기 때문이다.

고 김대범 선수는 스웨덴주니어 대표팀 단체전에서 2연패의 주역이

있고 개인전에서도 2위를 차지한 기량이 뛰어난 선수였다. "2012년 런던 올림픽에서도 반드시 메달을 따겠다"던 김선수는 본인이 런던 올림픽 출전권을 획득했지만 대한민국 대5종의 계산법에 의해 출전을 못하게 된다. 고 김선수의 부친의 말처럼 자비로 출전해야 하는 해외 경기 기록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근대5종을 아시아에서는 가장 잘 하는 국가. 아시안 게임에서는 중국과의 금메달 1개 차이로 1위를 차지하고 있다. 김 선수를 아끼던 지인은 만약 김 선수가 국가의 지원을 받아 혹은 여수시의 지원을 받아 올림픽에 출전했다면 하는 아쉬움을 밝혔다.

시합 날 하루에 5개 종목은 8시간 동안 하는 힘들고 비인기종목인 근대5종. 키 188cm, 몸무게 58kg의 신체조건도 불리했지만 강했던 고 김대범 선수.

동료 체육인들은 김 선수를 근대5종에서 최고였고 승부욕이 강하면서 밝고 환한 사람이었다고 기억하며 김 선수의 영상사진을 보면서는 눈물을 참지 못했다.

고 김 선수의 아버지는 "아들이 오래 우리 곁에 있는 방법으로 이 장학금을 전달한다. 아들이 좋았던 근대5종이 발전하여 인기 종목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후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최항란기자. 사진 김영주기자

KU
보성자동차
Bosung used car firm

대표 문경일
010-9450-7529



(주)모모렌터카 서교지점 MOMO Car Rental Co.,Ltd.
 보성테크 네비게이션 블랙박스 Bosung Tech
 서교주차장 Seo Gyo Parking lot

 MANDO MAPPY

본점 전남 여수시 서교1길 6 (서교동 658)
 TEL: 061)686-7301 FAX: 061)686-7303
인터넷 www.bsacar.kr **E-mail** moonkyungil@naver.com
봉산지점 전남 여수시 봉산새철2길 1
 TEL: 061) 686-7302
계좌번호 농협 302-9450-7529-41 (예금주: 문경일)

알림방

‘10만원 적금, 10만원 지원...저소득층 희망키움통장 II
 여수시(시장 권오봉)가 저소득층 자립과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희망키움통장 II 사업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대상자가 3년 동안 매월 10만 원을 적금하면 정부와 자치단체에서 1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만기 시 원금 720만 원과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사업 대상은 근로 활동 중인 중위소득 50%이하(4인 기준 2,306,768원) 주거, 교육 급여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이다. 일반인도 기준 중위소득 기준을 충족할 경우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사업 참여자는 3년간 통장을 유지하고 자립과 통장관리에 관한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또 지원금을 주택 구입, 교육비, 의료비 등 자립에 필요한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
 가입 희망자는 8월 1일부터 16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여수시민의 상, 자랑스런 여수인, 내달 9일까지 추천, 접수
 여수시(시장 권오봉)는 ‘여수시민의 상’과 ‘자랑스런 여수인’ 후보자를 오는 8월 9일까지 추천받는다며 25일 밝혔다.
 ‘여수시민의 상’은 지역사회와 향토문화 발전에 이바지하고 시민 복지증진에 현저히 공헌한 사람이나 탁월한 재능을 발휘해 시민의 명예를 국내에 널리 선양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추천 부문은 총 7개로 지역개발, 산업경제, 교육과학, 문예홍보, 사회복지, 체육진흥, 향토방위다.
 유관기관 단체장, 대학장과 각급 학교장 등은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고, 주민 50인 이상의 연서가 있으면 읍면동장도 가능하다.
 ‘자랑스런 여수인’은 관계, 범조직, 재계, 학계, 군인, 체육인, 문화, 예술인, 기타 사회적으로 명성이 뚜렷한 여수지역 출신 출향인사로 탁월한 능력을 발휘해 국가 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여수의 명예를 빛낸 공적이 인정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후보자는 시민 누구나 추천할 수 있다.
 여수시 총무과(☎ 061-659-3161)로 문의

여수시, 하반기 시민외국어 교육 수강생 추가 모집
 여수시(시장 권오봉)가 시민외국어 교육 수강생을 선착순 추가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모집인원은 총 134명으로 영어가 53명, 중국어가 50명, 일본어가 31명이다.
 교육은 이달 31일부터 12월 14일까지 여수시 평생학습관과 동주민자치센터 등 9개소에서 진행된다.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오는 30일까지 여수시 OK 통합예약 사이트(http://ok.yeosu.go.kr)에 신청하면 된다.
 수강료는 무료고 교재비는 본인이 부담한다. 자세한 내용은 여수시 교육지원과(☎ 659-4714)로 문의

전남도, 공사, 출연기관 하반기 신규 채용 43명
 전라남도 2019년 하반기 도 산하 공사, 출연기관 통합채용 필기시험을 9월 21일 실시한다고 밝혔다.
 채용 인원은 43명이다.
 기관별로는 ▲전남개발공사 8명 ▲순천의료원 12명 ▲전라남도 청소년미래재단 2명 ▲전라남도문화관광재단 3명 ▲전남생물산업진흥원 14명 ▲전남신용보증재단 2명 ▲한국학중앙연구원 2명이다.

원서 접수는 8월 19일부터 23일까지 5일간 채용 예정 기관에서 한다. 채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전라남도 누리집, 채용 기관별 누리집, 지방공공기관 통합채용정보시스템(클리어이잡플러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필기시험은 전라남도 주관으로 시행한다. 면접과 최종 합격자 선발은 채용기관에서 자체적으로 한다.

주차장 등 차량번호인식시스템 업데이트하세요
 전라남도는 9월 1일부터 자가용이나 렌터카 등 신규 승용자동차 번호판 앞자리가 2자리에서 3자리로 변경되므로, 주차장 등 시설물의 차량 번호인식시스템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고 29일 밝혔다.
 신규 번호판은 기존 흰색 번호판에 앞 숫자만 추가된 현행 ‘베인트식’과 앞 숫자와 국가장식·축약 부호 위·변조 방지 홀로그램 등이 추가된 ‘제귀반사식 필름식’ 2가지 방식으로 제작된다. 단 필름식은 2020년 7월부터 도입될 예정이다.
 아파트와 주차장·쇼핑몰 등에 설치된 기존 차량번호인식시스템은 8자리 새 번호판을 인식하지 못한다. 차량번호인식시스템을 사용하는 모든 시설을 관리자는 9월 신규 번호판 도입 전까지 시스템을 업데이트해야 한다.

차량번호인식시스템 업데이트는 해당 시스템 납품이나 유지관리업체를 통해 가능하다. 기타 기술적 사항은 국토교통부나 한국주차장협회에 문의하면 된다.

명랑대첩축제 조선수군학교 캠프 참가하세요
 전라남도는 이순신장군의 리더십과 가족애를 키울 수 있는 ‘조선수군학교’ 캠프를 오는 9월 27~28일 운영하기로 하고, 참가할 중학생 가족을 9월 10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개최하는 조선수군학교는 명랑대첩을 승리로 이끈 이순신 장군의 백전백승 리더십을 배우고 2019명랑대첩축제와 함께 가족 간의 즐거움 추억을 쌓고 유대감을 키우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문화재청과 전라남도 후원으로 운영되는 이순신리더십캠프의 일환으로 치러지며 중학생 자녀를 둔 가족이면 누구나 참가 가능하다. 참가비는 무료다.
 명랑대첩축제 누리집(www.mldc.kr)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이메일(song217@nate.com)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기념사업회 사무국(061-537-5265)으로 문의하면 된다.

생명의 땅 으뜸전남 자랑스러운 전남인 모십니다
 전라남도가 국내외 각 분야에서 전남 발전에 기여하고 전남인의 명예와 자존심을 드높인 2019년 자랑스러운 전남인 후보자를 오는 31일까지 접수한다. 선발 분야는 경제, 관광, 문화, 체육, 도민 소득 증대, 사회 봉사, 사회 안전, 기타 등 6개 분야다.
 후보자 추천은 기관, 단체뿐만 아니라 도민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전라남도는 후보자 공적 현지조사 및 두 누리집 공개를 통한 도민 검증을 한 후 외부위원 8명이 포함된 선정위원회에서 1차 심사, 2차 공적 심사하는 등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수상자를 선발한다는 방침이다.

오은진기자

여수시의회 김승호 의원, 내실 있는 관광정책 주문

194회 임시회 본회의서 ‘거북선사고’ 관련 시정질문



여수시의회소식

여수시의회, 이아포·두룩여 사건 진상규명 촉구 건의안 채택

25일 194회 임시회 본회의서 원안채택·박성미 의원 대표발의



▲박성미 의원

여수시의회(의장 서완석)가 지역의 아포 사건과 두룩여(황간도~금오도 사이)에서 미군 전투기의 기총소사로 민간인 희생자가 발생한 사건이다. 박 의원은 이날 “두 사건의 생존자들은 전쟁 후 뿔뿔이 흩어져 생사조차 확인하지 못해 주목받지 못했다. 희생자 유족들이 80~90대 노령임을 감안해 정부가 조속히 문제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를 위해 정부가 진

상규명에 적극 나서고 미 정부도 적극 협조할 것, 피해자 명예회복 등을 위해 과거사정리법을 개정할 것, 희생자 신고 상설화 제도를 마련할 것 등을 촉구했다.

채택된 건의안은 국회와 청와대, 각 정당, 관련부처 등에 송부될 예정이다.

박성미 의원은 “정부가 인권의 소중함을 깨닫고 평화·화해·화합·상생의 길로 가는 진상규명을 적극 추진하는 것이 희생자와 유족들의 응여리를 푸는 최선의 길”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를 위해 정부가 진

상규명에 적극 나서고 미 정부도

적극 협조할 것, 피해자 명예회복 등을 위해 과거사정리법을 개정할 것, 희생자 신고 상설화 제도를 마련할 것 등을 촉구했다.

채택된 건의안은 국회와 청와대, 각 정당, 관련부처 등에 송부될 예정이다.

박성미 의원은 “정부가 인권의 소중함을 깨닫고 평화·화해·화합·상생의 길로 가는 진상규명을 적극 추진하는 것이 희생자와 유족들의 응여리를 푸는 최선의 길”이라고 밝혔다.

‘횡단보도 투광기 설치’ 조례안 여수시의회 본회의 통과

민덕희 의원 대표발의...야간 횡단보도 보행자 안전 확보



▲민덕희 의원

야간 보행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횡단보도에 투광기를 설치하도록 규정한 조례안이 여수시의회 본회의를 통과

해 시행을 앞두고 있다.

여수시의회(의장 서완석)에 따르면 민덕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여수시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를 위한 안전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이

25일 제194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투광기는 횡단보도 보행자가 야간에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운전자에게 적절한 시각 정보를 제공하는 조명시설이다.

운전자의 사물 인지도도를 높여 갑속운전을 유도해 교통사고 예방에 큰 기여를 하고 있어 적극적으로 설치가 크게 늘고 있는 추세다.

이번 조례안은 투광기 설치 계획 수립부터 설치 우선순위, 설치방법 등 투광기 설치에 관한 전반적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앞서 지난 16일 해당 상임위원회인 해양도시건설위원회는 조례안 제정 중 안전시설을 투광기로 명시하고, 법률에 명시된 사항 등 일부 문구를 수정·삭제하는 안으로 수정 가결했다.

민덕희 의원은 “투광기 설치 확대와 함께 교통사고 사망자가 감소하고 있다는 여러 지자체들의 통계가 있다”며 “무엇보다 중요한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이번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취지를 밝혔다.

김영주 기자

주종섭 의원, ‘경전선 복선전철화·전라선 직선화’ 건의

25일 194회 임시회 본회의서 대표 발의



▲주종섭 의원

여수시의회(의장 서완석)가 경전선 복선 전철화사업의 조속한 추진과 전라선 직선화사업의 국가계획 반영

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냈다.

시의회에 따르면 25일 194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주종섭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전선 광주 송정

역~순천 구간 복선 전철화 사업 및 전라선(익산~여수엑스포) 직선화 사업 촉구 건의안’이 원안 채택됐다.

경전선은 광주 송정역에서 부산 부전역까지 경상도와 전라도를 잇는 유일한 철도교통망으로, 현재 광주~순천 구간(117km) 복선전철화를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주종섭 의원이 이날 밝혔다.

주 의원에 따르면 경전선 조기 복선전철화와 익산에서 여수엑스포까지 전라선 직선화사업이 함께 이뤄지면 수도권과의 2시간대 생활권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이번 건의문에는 광주~순천 구간 복선 전철화사업의 조속한 건설과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1~2030)에 전라선 직선화사업 반영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채택된 건의문은 국회와 청와대, 관련부처 등에 송부할 계획이다.

고희원 의원 ‘일본 정부의 경제침략에 대한 규탄 결의안’

경제침략 규탄 결의안 채택, 일본 정부의 경제침략 철회 촉구



▲고희원 의원

여수시의회(의장 서완석)는 25일 ‘일본 정부의 경제침략에 대한 규탄 결의안’을 채택하고 일본 정부의 경제침

략 철회를 촉구했다.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원안 채택됐다.

시의회는 최근 일본 정부가 수출규제에 이어 수출심사 우대국인 ‘화이트 리스트’에서도 한국을 제외하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과 관련해 결의안을 채택하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결의안에는 경제침략 행위의 즉각적인 철회, 강제징용 손해배상 관련 과거 잘못에 대한 진심어린

사과 촉구 등의 내용이 담겼다.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일본여행을 자제하고 일본산품 불매에 의원들이 앞장서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대표발의에 나선 고희원 의원은 “일본의 조치는 WTO협정에도 위배되는 것으로 안정적인 무역 등을 위해 노력한 국제사회의 공조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4조 제1항 ‘거북선은 여수시장이 관리한다’, 2항 ‘시장은 거북선 시설 및 전시설물이 망실, 훼손 또는 도난되지 않도록 안전한 관리를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손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언급하며 시정의 책임을 강조했다.

답변에 나선 권오봉 여수시장은

먼저 거북선 사고와 관련해선 안전 관리에 부족한 점이 있었다고 양해를 구하며 부상자 치료와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사고 전 점검은 안전점검이 아닌 시설물 점검차원이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수사결과가 나오면 참고하겠다고 답변했다.

건조를 위한 고증과 관련해서는 2009년 11월부터 2011년 1월까지 14개월 동안 전남대학교 이순신해양문화연구소 주관으로 연구용역을 통한 고증을 했다고 밝혔다.

해상전시를 못한 부분은 안전문제 제로 정박 중인 선박을 이전하기 위해 항만청과 해양수산부 협의를 진행했는데 어려움이 있어 우선 육상 전시를 하게 된 것이라며, 해상전시 시는 육상전시 기간이 많이 경과된 만큼 여러 가치를 짚어본 후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문가 의견을 듣고 안전에 문제가 없는 재질로 진출입로를 마련하는 방안은 수사결과 등을 보고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안전점검과 관련해서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거북선 조형물이 안전점검 대상은 아니라고 해석했다.

김승호 의원은 ‘허장성세’, ‘외화내빈’ 등 사자성어를 언급하며

“관광객들이 다시 찾게 여수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고 밝히며 질문을 마무리했다.

송영선기자

문체부의 <작은도서관 공모 사업> 여수시 6곳 선정! 국비 5억 6천만원 확보

이용주의원, 문체부담당자 면담 등 다각도 협조요청 끝에이른해거 시민들걸어서5분 이내 거리도서관,개개인문화소양미움껏 높일수있게



▲이용주의원

여수시가 문화체육관광부 생활SOC 공모 작은도서관 조성사업에 총 6곳이 선정돼 국비 5억 6천만원

을 확보했다. 전남도에 따르면 문체부의 제4차공모사업 선정 결과, 여수시는 6곳이 선정되었고 한 곳당 국비 9,800만원(70%)씩 지원(시비 30%)가 시설투자비로 지원)되어 총 5억 6천만원이 지원된다.

이번에 선정된 작은도서관은 공공건물 신축 혹은 리모델링을 통해

유휴공간에 열람실, 소규모 동아리 공간, 교육실, 전시공간 등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수요에 맞게 꾸미

후 개관될 예정이다.

이로써 여수시에 조성된 도서관은 기존 36개소를 비롯해 총 42개가 들어서게 되며, 앞으로 시민들은 걸어서 5분 이내의 거리의 도서관에서 개인인의 문화 소양을 마음껏 높일 수 있게 됐다.

이용주의원은 문체부의 작은도서관 4차 공모사업을 앞두고 일찌감치 여수시와 협력하여 문체부를 접촉하여 업무보고를 받아 정보수집에 나서서 등 선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다.

이와 관련해 이용주의원은 “정

보와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문화공간 역할을 수행하는 도서관이 부족해 항상 아쉬웠는데 이번 공모사업에 소기의 성과를 얻게되어 다들스럽게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이어 의

원은 “작은도서관은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커뮤니티 공간이자,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를 파악할 수 있는 정보제공 장소로서 특별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전망과 “앞으로 지역발전

을 위한 일이라면 무슨 일이든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해림기자

서의장, 국립 여수해양기상과학관, 여수세계박람회장 어린이공원부지 내에 건립



양시설, 주차장 등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동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공원시설의 종류 5호의 규정에 따라 교양시설인 과학관, 천체 및 기상관측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어린이공원 부지면적이 9,739제곱미터이므로 해양기상과학관의 건축비타당적 1,700제곱미터만 활용하면 가능하다는 이른다.

해양기상과학관은 전시관, 체험관, 도서관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설치 운영되게 됨으로 어린이, 청소년 등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게 되는 어린이공원내에 해양기상과학관이 설치되는 것이 보다 더 효과적이고, 뿐만 아니라 부지매입비(약 100억원)도 절약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 제23조4호, 도시공원의 효용을 다하기 위해 설치하는 공원시설 규정에 따라 도로 또는 광장, 박물관 등 교

양시설, 주차장 등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동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공원시설의 종류 5호의 규정에 따라 교양시설인 과학관, 천체 및 기상관측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어린이공원 부지면적이 9,739제곱미터이므로 해양기상과학관의 건축비타당적 1,700제곱미터만 활용하면 가능하다는 이른다.

해양기상과학관은 전시관, 체험관, 도서관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설치 운영되게 됨으로 어린이, 청소년 등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게 되는 어린이공원내에 해양기상과학관이 설치되는 것이 보다 더 효과적이고, 뿐만 아니라 부지매입비(약 100억원)도 절약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 제23조4호, 도시공원의 효용을 다하기 위해 설치하는 공원시설 규정에 따라 도로 또는 광장, 박물관 등 교

최향린기자

여수일보 전라남도여수시여서동 7길 18, 1층

고문 박군상 / 회장 정민근 / 발행·편집인 한영래
 편집국장 최향란 / 대표 김영주
 대표전화: 061 654-8885
 기사전화: 독자투고: 061 654-8885, 팩스: 070 9220-8808
 기사전화: 배달안내: 061 654-8885, 광고 및 구독문의: 061 654-8885

*등록번호: 전남 04034(주간) *등록일: 2014년 7월 11일
 **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우리 동네 소식

여수시 미평동, 사랑의 콩국수 나눔 펼쳐

여수시 미평동은 환경공해추방 운동중앙회 전남본부 주관으로 지역어르신 40여 명에게 콩국수를 대접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이마트 여수점 후원으로 마련됐으며, 이마트 희망 나눔 봉사단과 도시의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원 등은 배식 봉사를 했다.

환경공해추방운동중앙회 이영은 전남본부장은 "어르신들이 음식을 맛있게 드시는 모습을 보면 다음에는 어떤 메뉴로 대접할까 하는 행복한 고민을 한다"며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과 어르신들을 위한 나눔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했다.

여수시 시정중, 중복 맞이 '사랑의 삼계탕' 나눔 행사

여수시 시정동은 시정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민간위원장 송재열, 공공위원장 김경호) 주관으로 혼자 생활하면서 제대로 영양을 챙기기 어려운 어르신들을 초청해 중복 맞이 '사랑의 삼계탕' 나눔 행사를 실시하였다. 이날 행사는 여수향토요리문화화

원 후원으로 관내 독거어르신 100명을 모시고 직접 준비한 삼계탕과 떡, 과일 등 다과를 대접함으로써 원가를 회복하고 건강하게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하고자 마련한 자리이다. 여수향토요리문화학회 김명진 원장은 "어르신들의 원기회복을 위해 삼계탕 나눔 행사를 준비



하게 됐다"며 "어르신들의 건강과 장수를 기원 드린다"고 말했다.

여수시 여천동 새마을회, '옥수수 나눔 행사 열어'

여수시 여천동 새마을회(회장 김상철, 김병영)가 옥수수 나눔 행사를 열었다. 이날 새마을회 회원 20여 명은 지리리방 40여 평에서 옥수수 66포대를 수확했다. 여천동은 옥수수를 관내 경로당

26개소와 소외계층 40세대에 전달했다. 여천동 새마을회는 지난 2015년 쓰레기로 가득했던 화산동 군장마을 입구 공터를 텃밭으로 일궜다. 이후 매년 감자, 배추, 옥수수 등을 심어 나눔 행사를 진행



하고 있다.

여수시 한려동 새마을협의회 부녀회, 사랑의 삼계탕 나눔

여수시 한려동 새마을협의회와 부녀회가 초복을 맞아 관내 경로당 7개소에 삼계탕과 수박을 전달

했다. 이날 새마을부녀회원은 백당금 경로당에서 직접 삼계탕을 삶아

어르신들에게 대접하기도 했다. 김명숙 새마을부녀회장은 "작은 정성이지만 어르신들이 삼계탕을 드시고 무더운 여름을 건강히 이겨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여수시 충무동 새마을회, 경로당 청소 나서

여수시 충무동 새마을회가 지난 12일 관내 10개 경로당을 방문해 청소를 하고 수박 30만 원 상당을 전달했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회원 20여 명은 에어컨과 냉장고를 집중적으로 청소하며 구슬땀을 흘렸다. 청소 후에는 어르신들과 수박을 나누며 여름철 폭염에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연화경로당의 한 어르신은 "경로당 청소를 고민하던 차에 이렇게 봉사해 주니 올 여름을 쾌적하게 날 수 있을 것 같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김성복 충무동새마을협의회장은 "연로한 어르신들이 에어컨과 냉장고 등을 청소하는 것은 쉽지 않



다"며 "앞으로 봉사 활동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여수미술관, 지역이동센터 대상 재능기부 '훈훈'

여수미술관(대표 서봉희)이 지역이동센터를 대상으로 재능기부를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 여수미술관은 엑스포지역이동센터 아동 15명을 대상으로 지난 12일부터 센터와 미술관을 오가며 매주 1회 미술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너의 마음을 보여줘'라는 주제

로 진행되는 이번 프로그램은 음악, 미술, 문예 등으로 구성돼 있다. 초등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하고 자유롭게 감정을 표출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서봉희 대표는 "총 8시간 진행되는 다양한 문화예술 교육이 아이들의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재능기부를 지속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여수시 중앙동 새마을협의회, 폭염 속 장군도 청소

여수시 중앙동 새마을남녀지도자협의회(김성중 협의회장) 지난 2일 오후 장군도에서 청결활동을 펼쳤다. 이날 회원 20여 명은 폭염 속에서 구슬땀을 흘리며 페그플과 생활 쓰레기 약 300kg을 수거했다.

일부 회원은 시민과 관광객을 위해 방역소독을 진행했다. 김성중 회장은 "장군도의 아름다운 환경 보존을 위해 청결활동을 지속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송영선기자



여수 돌산대교, 교량 케이블 교체 위해 8월12일부터 12월 27일 까지 교통 전면 통제



여수시내와 돌산읍을 잇는 돌산대교가 교량 케이블 교체를 위해 다음달 8월12일부터 12월27일까지 통행이 금지된다. 23일 익산국토관리청은 "노후 케이블 교체와 외부 철 도장작업을 위해 이 기간 차량과 보행자 통행을 차단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여수시내에서 돌산읍으로 들어가거나, 돌산읍에서 여수시내로 나가려면 거북선 대교를 이용해야 한다. 다만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추석연휴(9월11일~16일)와 여수한상대회 기간(10월22일~24일)에 한해 차량과 보행자들의 통행을 일시 허용할 방침이다.

최향린기자

‘여수시 소재지구 스마트시티 시범지구로

공무원 8명으로 구성된 시책연구팀...스마트 교통,에너지,환경,복지 등 제안 ‘스마트 가로등’ 스마트폰 앱 통해 상가·건물의 각종 정보 제공하는 ‘비콘마일’ 제안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스마트시티 선도도시로의 도약을 위해 여수시 소재지구를 스마트시티 시범지구로 조성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여수시 공무원 8명으로 구성된 시책연구팀이 '4차는 여수로'는 윈도심 공평화와 SOC 유지비 증가, 저출산,고령화 등 각종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소재지구를 스마트시티 테스트베드(시범지구)로 가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구팀은 지난 3월부터 미국, EU, 중국, 싱가포르, 일본 등 해외의 스마트시티 정책을 분석했다. 또 창원과 부산을 벤치마킹하고, 서울특별시 등 국내 선진 사례도 수집했다.

이를 통해 스마트시티 후발 주자인 여수시가 앞으로 펼쳐야 할 정책을 보고서로 만들었다.

보고서에 가장 먼저 내 내용은 스마트 교통 체계 구축이었다. 사물인터넷(IOT)을 통한 스마트 주차와 친환경(전기, 수소) 셔틀버스

운영, 차량 공유가 핵심을 이루고 있다.

다음은 미래에너지 기반 단지 조성으로 건물일체형 태양광(BIPV)과 수소 충전소 설치를 강조했다.

또 스마트 환경 시스템 구축을 위해 도시 내에 소규모 수처리 시설을 설치해 운영하는 분산형수(水)처리 시스템, 나무 대신 이끼를 이용해 도심 공기를 정화하는 'City Tree', 하수 처리장 방류수의 열을 지역 냉난방으로 활용하는 '뉴워터 플랜' 등을 소개했다.

이밖에도 방법, 대기 환경 모니터링, 무선 인터넷, 전기차 충전 등의 기능을 갖춘 '스마트 가로등'과 스마트폰 앱을 통해 상가,건물의 각종 정보를 제공하는 '비콘마일'(Beacon Mile)을 제안했다.

스마트시티의 심장 역할을 수행할 '통합플랫폼 구축'과 고령화 사회에 따른 각종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인이 함께 생활할 수 있는 '코하우징'(Co-Housing) 사업도



연급했다. 시책연구팀이 '4차는 여수로'의 팀장은 "이번 연구를 통해 국내외적으로 4차 산업 혁명과 스마트시티에 대한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여수시가 스마트시티 선도도시가 될 수 있도록 팀원들과 연구를 지속하겠

다"고 말했다. 여수시는 시정발전과 조직 활성화를 위해 매년 공무원 시책연구팀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는 20개 팀 100여 명이 인구조대, 일자리 창출, 생활SOC사업 발굴 등을 연구하고 있다.

이규원기자

여수시, 일본경제보복 맞서 '광복절 태극기 달기' 적극 전개

5일부터 15일까지 집중 홍보기간 운영...마을방송, SNS, 시내외 버스 방송 등 일반 가정과 민간기업, 단체는 8월 15일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 국기 게양

"100년 전 독립운동에는 참여하지 못했지만, 이번 광복절 태극기 달기 운동에는 적극 동참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일본에게 한민족의 뜻을 알리고, 우리 아이들에게도 뜻깊은 부모가 되고 싶습니다." 여수시 학동에 거주하는 오00씨(여, 40세)의 목소리에는 결연한 의지가 묻어났다.

여수시가 일본의 불합리한 경제보복에 맞서 선열들의 숭고한 나라사랑 정신과 독립정신을 계승,발전하기 위해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운동'을 적극 전개한다.

이를 위해 시는 오는 5일부터 15일까지 11일간을 '전 시민 태극기 달기 운동' 집중 홍보기간으로 운영한다.

시청 홈페이지와 페이스북, 카카오톡 등 SNS를 통해 홍보를



강화하고, 기업체 사보 등에 태극기 달기 캠페인 문안 삽입을 권장한다. 시내외 버스 안내방송을 활용하

태극기 달기 홍보 방송을 하고, 읍면동 이,통장의 협조를 얻어 마을 방송과 주민 독려를 진행한다. 아파트와 상가 밀집지역에 홍보

물을 배부하고, 국기꽂이 설치도 유도한다.

이와 함께 관공서 등에 게양된 국기의 오염, 훼손 상태를 점검해 변, 퇴색된 국기는 즉시 교체한다.

광복절인 8월 15일은 공공기관 청사는 평소대로 24시간 국기를 게양하고, 각급 학교와 군부대는 낮에만 게양한다.

일반 가정과 민간기업,단체 등은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 깃봉 바로 아래에 국기를 게양하면 된다.

심한 비바람 등으로 국기의 존엄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는 예외하지 않고, 일시적 악천후는 날씨가 갠 후에 다시 게양한다.

시 관계자는 "최근 일본의 경제보복에 맞서 지역에서 일본 제품 불매운동 등이 일고 있다. 이에 발맞춰 시에서도 이번 광복절 행사와 태극기 달기 운동을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한다."며 "애국심을 드높이기 위해 추진하는 광복절 태극기 달기 운동을 함께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영주기자

여수세계박람회 청소년 해양아카데미 열기 후끈,매년 성황리 운영

'살아 있는 바다, 숨 쉬는 연안'이라는 주제로 지난 2012년 98일간 성공적으로 개최된 여수세계박람회의 성과와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한 '청소년해양 아카데미'가 매년 성황리에 운영되고 있다.

26일 전라남도도 따르면 여수세계박람회장에서 전국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양에 관심 있는 청소년을 미래 해양리더로 양성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청소년 해양아카데미는 매년 4월 전국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참가 신청을 받아 대상 학교와 학생을 기수별로 선발해 2차 3일 과정으로 진행하고 있다.

2015년부터 운영한 이후 지금까지 전국 175개 중,고등학교에서 2천

228명의 학생과 교사가 수료했다. 자유학기제 연계 운영으로 해양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과 흥미를 이끌어내고 있어 학생들의 호응이 높다.

교육과정은 여수세계박람회장 견학, 해양 역사문화시설 탐방, 카약 등 해양레저스포츠 체험을 통한 해양 안전교육과 협동심?책임감?내성 교육, 해양과학, 해양산업 등 해양 진로, 이순신,장보고 리더십 등이다.

특히 해양경찰교육원과 협조해 선박에서의 대피 및 대처 방법, 비상탈출, 생존훈련 등 선박사고 대응 교육과 훈련을 하고 있다. 연안이나 방파제에서 차량 추락 시 대처 요령 등 재난대응훈련도 하고 있다.

청소년해양아카데미는 올해 총 7

기 420명 교육을 목표로 지난 5월부터 교육을 실시해 7월 현재까지 서울, 대전, 충남, 경남, 경북 등지에서 19개 중?고등학교 학생?교사 등 228명을 수료했다. 앞으로 9월까지 18개교 212명을 교육을 계획하고 있다.

지난 7월 제4기 청소년해양아카데미 교육에 참여한 천안 제일고 박재운(2년) 군은 "평소 관심 있던 해양 분야에 대해 많은 것을 배우는 기회였다"며 "체험을 통해 해양레저스포츠와 재난 대처 요령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이상심 전라남도 삼해양정해교장은 "아카데미 운영으로 미래 주역인 청소년들에게 해양에 대한 희망과 비전을 제시하고 여수세계박람회장이 해양강국 건설 촉매의 장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람회장에 2020년 준공을 목표로 건립 중인 청소년해양교육원이 완공되면 박람회장 사후활용에 기여하고, 청소년의 해양 안전의식을 함양하는 등 다양한 해양학습과 체험의 중심지가 될 전망이다.

최향린기자

세계마스터즈수영대회, 여수 오픈워터경기 9일 시작

여수시(시장 권오봉)는 오는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엑스포해양공원에서 세계마스터즈수영대회 오픈워터경기가 열린다고 5일 밝혔다.

대회 종목은 남녀 3km, 25세부터 89세까지 5세 단위로 구분해 17경기를 진행한다.

경기시간은 오전 10시부터 낮 1시 30분까지며, 관람료는 무료다. 대회를 앞두고 여수시는 시가지와 경기장 주변 환경 정비와 적조, 해파리 예찰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대회 기간에는 경기장 주변 교통소통 대책을 추진하고, 음식점 바가지요금 근절과 식중독 예방에도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대회 관계자에게 이름다운 여수를 알리기 위해 무료 시티투어도

제공한다. 탑승객은 엑스포역을 출발해 오동도, 진남관, 웅천천수공원과 예술의 섬 정도, 수산시장을 경유하며 여수의 문화유적과 관광지를 둘러 본다.

조직위원회에서 발급한 카드만 있으면 시내버스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선수들이 그동안 갈고닦은 기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대회 준비에 만전을 다하겠다"며 "지난 7월에 열린 선수권대회에서 보여준 성원과 참여를 다시 한 번 재현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해광기자

여수시, 바닥분수 본격 가동...무더위 날리자

여수시가 폭염에 대비해 이달 1일부터 도시공원에 있는 바닥분수와 물링포그(물안개 분사기)를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바닥분수는 이순신 광장, 이순신 공원, 웅천해변 문화공원, 죽림 근린공원, 오동도, 동동공원, 미평공원에 설치돼 있다.

오전 10시부터 저녁 8시까지 30분 가동 20분 중단을 반복한다.

물링포그는 이순신광장과 성산공원, 거북선공원에 마련돼 있다. 오전 10시부터 저녁 7시까지 5분 가동 후 1분 정지한다.

시 관계자는 "바닥분수와 물링포그가 설치된 공원에 거주 단위 방



문객이 많이 찾을 것으로 보인다"며 "시민과 관광객의 건강을 위해 수질 점검과 안전 관리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여수시는 지난달 4억 6000만 원을 들여 바닥분수 2개소와 물링포그 3개소를 신설했다.

김영주기자

여수시, 무료 바다 체험...“가자! 여수로”

시민과 함께하는 해양관광 휴양도시 ‘무료 바다 체험’ 실시

여수시가 마이스(MICE) 산업 발전을 위해 무료 바다 체험을 실시하고 있다.

무료바다체험은 ‘윈드서핑, 덩기요트, 패들보드, 시트카약(seat on -), 시인카약(seat in -), 크루저, 스노클링, 스쿠버 등 8개 종목이다.

웅천친수공원(웅천동)과 소호요트마리나(소호동)에서 3개 단체가 운영하며 무료로 체험할 수 있다. 또한 방문객들은 웅천친수공원 캠핑장에서 적은 비용으로 잠도 잘 수 있다.

바다 체험은 하고 싶어도 체험할 수 있는 곳이 많지 않고, 유료로 하게 되면 많은 비용이 든다. 다른 지역에서 ‘스쿠버’의 경우에는 1회 체험 20만원 정도의 경비가 든다고 한다. 시는 관광객들이 오랫동안 머무르는 마이스 산업을 발전시켜 여수의 경제에 보탬이 되도록 할 방침이다.

운영 단체는 ‘한국해양소년단 전남본부연맹, 한국해양구조협회 전남



남동부지부, (사)여수스노클링’이다.

광주에서 바다체험을 온 전남대학교 기계공학부 한은 동아리 학생들은 이 좋은 프로그램을 널리 알려서 많은 관광객들이 여수에 와서 좋은 체험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고 동아리 회장 오산율(3학년, 22세) 학생은 “바닷가에 와서 모래밭

에서 배구 정도 하려고 했는데, 다양한 바다 체험 활동이 있어서 취향대로 윈드서핑, 덩기요트, 패들보드, 카약, 스노클링, 스쿠버 등을 골고루 체험하니 대단히 재미있다. 무료로 체험할 수 있게 해준 여수시에 고맙다”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해양구조협회 전남본부지부 스쿠버다이빙 김한식강사

는 “대부분 체험자들이 처음 해보는 것이라 신기해하고, 수중 활동을 하고 나서 매우 만족해했다. 여행하다가 이렇게 좋은 바다 체험을 무료로 할 수 있다는 것에 놀랐다고 만족해 한다. 여수에서 지원해 주니까,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용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공문택 시민기자**

여수지역, 국제구호목적 NGO 탄생

러브 앤 셰어링(LOVE & SHARING) 활동 시작

여수지역을 기반으로 국제구호사업 및 지역사회 배려계층 등을 지원하는 목적의 인도주의 실천 국제구호단체가 활동을 시작하였다.

마띠유호텔 컨벤션홀에서는 러브 앤 셰어링(LOVE & SHARING)이라는 단체의 창립총회(22일)가 열렸다. 단체명에서 의미하듯 사랑과 나눔이라는 모토로 국내 및 국제구호사업을 전문으로 하기 위해 설립된 국제NGO 단체이다.

러브 앤 셰어링(LOVE & SHARING)은 국제구호뿐 아니라 앞으로 지역사회의 아동, 여성, 노인, 다문화, 장애인, 청소년, 북한 이탈주민 등 배려계층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지원사업을 펼쳐나갈 것이며, 건강한 미래세대 육성을 위한 어린이·청소년·대학생, 청년 지원사업 및 관련 프로젝트도 추진 할 예정이다.

이 날 창립총회는 정관제정, 임원선출, 사업 및 예산확정 등 단체의 골격을 세우는 주요 안건들을



통과시켰으며, 앞으로 사단법인으로 활동할 예정이다.

이날 법인의 대표이사로 선출된 최규식대표(은현교회 담임목사)는 인사말을 통해 “모두가 행복한 세상의 꿈이 오랜 준비기간을 거쳐 창립되는 러브 앤 셰어링을 통해 그려지기를 희망하며, 오늘 우리의 소망을 담아 새 출발을 알린다.”고 활동을 알렸다. **차기철시민기자**

이날 행사에는 특별히 활발히 국제구호사업을 펼치는 더라이트 핸즈 손정배 대표가 참석하여 축사를 통해 “러브 앤 셰어링(LOVE & SHARING)은 앞으로 더 라이트 핸즈 등 여러 국제 NGO 들과 협력을 통해 연대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는 뜻을 밝혔다.

미평동 9기 주민자치위원회 여수시 장애인 종합복지관에서 봉사

한 목소리 한 뜻 모아 한 곳 향해...아름다운 미평동, 아름다운여수시 만들기

미평동 9기 주민자치위원회가 지난 22일 여수시 장애인 종합복지관에서 봉사를 했다.

여수시 장애인 종합복지관과 미평동 주민자치위원회는 2017년 1월에 자매결연을 한 이후 꾸준한 봉사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날 봉사에 참여한 9기 주민자치위원회의 평균 연령은 49세로 왕언니 민경자 위원, 황규영 위원의 수년간 봉사활동 노하우와 팁을 알려주며 초차 위원들의 실수와 함께 각종 야채 설거지 시작으로 반찬 재료 준비와 배식, 설거지를 함께 하며 웃음꽃을 피웠다.

이날 김병국 전 8기 위원장은 고 무장화와 고무장갑을 끼고 솔선수범 봉사에 참여했다.

이번 9기는 류갑선 전 동장이 발령 나기 하루 전까지 현 김수원 행정 복지 팀장과 함께 오가는 길에

동 주민 가게에 둘러 오빠같이 형 같이 때론 익살맞은 동생같이 소통을 나누며 동에 관심을 두게 끌어 주신 덕에 결성되었다.

9기 강형국 위원장은 “리어카 한 대를 끄는 일도 뒤에서 밀어줄 때 한결 수월해진다. 예를 들어 선두와 말미가 다른 방향으로 서로 당기지만 한다면 어떨까? 아마 결국엔 지쳐 리어카를 놓치고 말 것이다. 포지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뜻을 함께한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임원들과 선배들이 앞에서 끌고, 뒤에서 후배들이 힘껏 밀어줄 때 목적지에 안전하게 도착할 것이다.”라고 말하며 서로 힘을 모아 봉사하는 미평동 주민자치위원회의 뜻을 밝혔다.

작게는 주민자치위원회 선출배, 좀 더 크게는 각 동 단체와 시 관



련 공무원, 더 크게는 대한민국 시, 도민과 정부가 한 목소리로 한 뜻을 모아 한 곳을 향해 각 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한다면 아름다운 미평동 아름다운 여수시 아름다운 대한민국이 될 것이다. **송정현 시민기자**

한편, 미평동 9기 주민자치위원회는 지난 17일 강형국 위원장을 추대하고, 부위원장 정성훈, 감사 최기태, 사무국장 구민호를 임명하고 출범식을 가졌다. **송정현 시민기자**

일자리 넘어 치매 극복 치매 통합관리 서비스 제공

여수시치매안심센터로부터 치매극복선도단체 지정

여수시니어클럽은 여수시치매안심센터로부터 현관을 전달받아 올해 여수에서 다섯 번째로 ‘치매극복선도단체’에 지정되었다.

치매극복선도단체는 치매환자와 가족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치매 친화적 사회문화를 조성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이를 위해 기관 내 직원 치매파트너 교육 이수와 현관전달식을 가진다.

기관은 지정 이후 홈페이지에 치매극복선도단체임을 명시하고 참여자에 대한 지속적 교육을 실시하며 수혜대상자를 적극 발굴하여 관련 기관을 연계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해당 단체에 근무하는 직원은 치



매파트너로서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치매환자를 배려하고 안부를 물어 교육에서 배운 정보를 주변에 공유하여야 한다.

여수시치매안심센터는 올해 봉 강동 신청사로 이전했으며, 지속적으로 치매극복선도단체를 지정하여 치매환자와 그 가족, 여수시민

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치매 통합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여수시니어클럽 김순정관장은 “건강한 노후 생산적 노인복지 실현을 다짐한 만큼, 앞으로 지속적으로 적극적인 치매극복 활동을 수행하여 노인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가겠다”고 약속했다.

치매안심센터는 정부가 치매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2017년 치매국가책임제를 발표한 후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원이 강화되고 있다. 2030년에는 인구의 30%이상 이 65세 이상의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다고 하니 걱정이 아닐 수 없는 가운데 여수시니어클럽이 ‘치매극복선도단체’로 개소하여 치매환자 지원체계가 좀더 체계적으로 구축될 전망이다. **김바다시민기자**

꿈을 찾아 떠나는 세 명의 학생, 최향란시인과 만나다

전라남도 청소년 미래대전 프로젝트 책 출판 과정, 작가와의 만남

강성은, 이규리, 조여원 (웅천중 1년) 작가가 꿈인 우리는 최향란 시인을 만나 인터뷰를 했다.

전라남도 청소년 미래대전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책을 출판하는 과정에서 ‘작가와의 만남’이라는 코너를 만들어 최 시인과 함께 그동안 공부했던 문학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따로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로운 질문과 답변 형식으로 주로 우리가 질문하고 최 시인이 대답하기였다.

글감을 얻는 방법에 대하여 집중적인 질문을 했고 그 외에도 퇴고하는 요령과 힌트, 출판 과정 등을 물어 보았고, 최 시인은 모든 질문



에 미래의 작가인 학생의 시점에서 답변하는 내내 웃음이 끊이지 않았

다. 최 시인은 어린 작가들에게 “향

상 주의를 관심 있게 관찰하는 것이 중요하다. 글이 안 써질 땐 작품성이 뛰어난 시집, 소설 등을 읽어 동기를 부여 하고 필사하는 것이 가장 좋은 공부다.”라는 조언을 했다.

최 시인은 학생들에게 가장 추천하고 싶은 책을 ‘어린 왕자’로 꼽으며 10분 이상 읽어볼 권유했고 쉽게 풀이된 고전, 철학 관련 도서 등을 읽어 보라 추천해 주었으며 최 시인의 시집 ‘밖엔 비, 안엔 달’의 3권의 시집을 선물로 전해 주었다.

한편 최 시인은 공동 제작중인 소설의 제목이 없자 가제목을 우선 선정해보는 것도 좋을 것이라고 하고, 영감이 떠오를 경우 바로바로 메모할 수 있게 늘 메모장을 가지고 다니며 메모하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는 조언도 덧붙였다. **강성은, 이규리, 조여원 (웅천중 1년)**

무청시래기와 코다리 매콤달콤 환상의 조합

여수소호점 황금코다리



그 덩기됐어?

코다리조림 맛있게 먹는 법~ 1. 김을 준비 2. 밥에 코다리 한 점과 양념 쓱쓱 3. 콩나물과 청양고추 올리기... 라고 하는데, 다~ 필요없다. 고민할 것도 없이 소호동 끝 소재마을에 있는 ‘황금코다리’에 가면 된다. 모든 메뉴가 다 맛있지만 ‘코다리시래기조림’ 강추!!! 무청시

래기와 코다리의 매콤달콤 환상의 조합, 그리고 졸깃한 가래떡은 중독성 있는 별미다. ‘막걸리 무한리필’이라는 주인장의 무한 배려도 있다. 가격 착하고 남녀노소 모두 즐겨 먹는 코다리조림 먹는 것도 훌륭한데, 따로 손님을 위해 마련한 ‘커피타임 공간’ 소호 안바다를 바라보며 한적한 오후를 즐겨도 좋다. **천나현시민기자**



필리핀 정부 환경문제로 보라카이 폐쇄했다가 재개장

여수바다, 아끼고 보호하여 후세에도 아름답게 보존된 여수바다 물려주어야

필리핀 보라카이를 다녀와서

지구의 70%는 바다로 되어있다. 그 중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 싸여 있는 반도 국가이다. 지구의 환경이 파괴되어 온난화 현상이 생기고 남극의 빙하가 녹고 있다는 뉴스를 들은 적이 있다.

무분별한 개발과 오염, 더 이상 두고 볼일이 아니다. 환경!! 바다가 위험하다.

내가 이야기할 곳은 2017년 6월 여행을 했던 필리핀 보라카이다. 덩겁한 나라! 첫 인상은 그렇게 좋지 않았다.

곳곳에 쌓여 있는 쓰레기! 이상한 냄새! 지저분하고 위험해 보이는 집들! 모여있는 웅덩이까지.. 사람들이 버리는 담배꽂이 및 쓰레기가 보였다 골목은 어둡고 지저분했다.

필리핀 중부 파나이섬 북서부에 위치한 보라카이는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세계의 필리핀 여행객들이 가장 많이 찾는 관광지다. 작년 한 해에만 200만명 이상의 여행객이 보라카이를 찾았고 그중 한국인 관광객은 35만명에 이른다. 필리핀 정부가 환경문제로 폐쇄



했다가 지난해 10월 재개장한 보라카이를 오기는 항공사들을 대상으로 부정기편 운항을 중단한다고 선언했다.

보라카이에 폐쇄를 언급한 이유는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이 필리핀 중부의 유명 휴양지 보라카이(Boracay) 섬의 외국인 관광객 방문을 제한할 수 있다고 경고했고, 보라카이 섬의 하수·쓰레기 문제가 심각해져 현지에서 큰 문제로 불거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 보라카이는 관광객 수를 제한하고, 불법 건축물 및 환경 보호를 위하여 엄격한 관리감독을 하고 있다.

최근에 보라카이는 해변 내에 금연 및 취식을 절대금지하고 있으며 여러 시설 계에도 정비되고 있다.

필리핀 당국은 환경보호와 지속 가능한 관광을 위해 보라카이 섬의 수용한계를 5만5천명으로 진단하고 주민과 근로자를 뺀 관광객을 1만 9천명 가량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2019년 6월 다시 보라카이를 찾아갔다. 여전히 아름다운 그곳은 환경을 지키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의 노력으로 바다는 에메랄드빛을 되찾았고 모래사장도 넓어졌다.

우리나라도 바다환경에 대한 노력과 관심이 더 높아지면 좋겠다. 한려수도와 다도해 해상국립공원이 어울려진 여수바다를 아끼고 보호하여 후세에도 아름답게 보존된 여수바다를 물려주어야겠다. **어린기자 박서윤 (양지초4년)**

노인재능나눔활동지원사업 풍악예술단 흥부자택 - 이순신광장 공연

여수시니어클럽(관장 김순정)은 지난 5월 1일부터 10월 31일 까지 재능을 보유한 어르신들께 사회참여를 통한 노후 성취감 제고 건강 및 대인관계 향상을 위해 재능나눔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 사업의 일환으로 이순신광장에서는 전라좌수영수군지킴이사업단과 함께 풍악예술단(흥부자택) 공연이 펼쳐지고 있고 풍물놀이뿐만 아니라 한국무용과 훌라춤이 어우러지면서 분위기는 점점 뜨겁게 달아올랐다. 구경하는 시민과 관광객들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함박 박수를 보냈다. 이날 공연의 백미는



풍과리의 상쇠제비로, 단원들이 북과 장구로 신나게 한바탕 놀자 관객들도 춤추고 노래하며 한데 어우러져 화려한 막을 내렸다. 한편 노인재능나눔활동지원사업 풍악예술단(흥부자택)은 매달 4회(10시간)

으로 지역민의 건강증진, 여가 영위, 친목관계 형성을 위해 요양병원, 노인복지센터, 관광지에서 풍물놀이와 같은 문화예술공연을 나누고 있다. **김대업 시민기자**

주차단속원을 왜 뽑나요?...친절한 여수시???

남의 목소리 (호루라기)

여기는 관광객들과 많은 여수시민들이 이용하는 해양공원 주차장, 1월부터 유료주차장 시설을 만들어 왔는데 주변 상가들과 협의가 안 되어서 아직 무료 주차장입니다. 여수 종합동 해양공원 주차장을 점유하여 수년간 복박이 불법장사를 하고 있는 5톤 트럭, 후진 주차하다가 접촉사고를 냈습니다. 조금은 억울하다 싶기도 하고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면 안되겠기에

여수시 해양방면제과에 민원 신청을 했습니다. 차량을 옮기는 게 아니라 주차 스톱퍼를 옮겨준 어처구니없는 민원 해결??? 차주의 부인은 주차장을 점유하고 불법장사를 하고 있지만 차주가 병원에 입원중이라서 옮길수가 없대네요. 주차장을 점유하고 있는 불법 차주에게만 "친절한 여수시"인가요? 빠른 민원 해결? 어쩐지 많이 억울한 것은 무엇일까요?

여수시민 김00



*호루라기-시민여러분의 제보를 받습니다. 신원 비밀을 보장합니다. 전화)061-664-8885 이메일)ysb1333@ranmail.net



여름철 야생버섯 함부로 먹으면 위험하다!

식용버섯 모양 비슷 오인해 섭취, 잘못된 독버섯 상식 사고 가장 많아
전남산림자원연구소 닳은꼴 '노란다발-개암버섯' 등 전문가 확인 당부

전라남도산림자원연구소(소장 박화식)는 야생버섯 발생이 많은 여름철 무분별한 채집이나 섭취로 중독사고가 매년 발생하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28일 전남도산림자원연구소에 따르면 우리나라에는 1천900여 종의 버섯이 자생하고 있다. 이 중 먹을 수 있는 버섯은 약 400여 종으로 21%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독버섯이거나 식용가치가 없는 버섯이다. 해마다 7월부터 10월 사이 야생 독버섯 섭취로 인한 사고가 집중되고 있다. 최근 10년간 독버섯 섭취로 인해 총 210명의 환자가 발생했

으며, 이 중 15명이 사망해 독버섯 중독사고에 대한 주의가 요구된다. 중독사고는 독버섯에 대한 잘못된 지식으로 인한 경우가 많다. 특히 식용버섯과 모양이 비슷하게 생긴 갈고름을 보고 오인해 섭취하는 사고와 잘못된 독버섯에 대한 상식으로 인한 사고가 가장 많다. 식용버섯과 독버섯의 모양이 비슷한 버섯에는 '개암버섯(식용)과 노란다발버섯(독)', '달걀버섯(식용)과 관대버섯(독)', '염지버섯(식용)과 붉은사슴뿔버섯(독)'이 대표적이다. 흔히 '색이 화려한 것은 독버섯이고 하얀 것은 식용버섯이다',

'버섯이 세로로 찢어지면 식용버섯이다', '벌레가 먹은 것은 식용버섯이다'는 잘못된 인식이 일반인들에게 퍼져 있다. 하지만 갈고름만 보고 버섯의 독성 유무를 판단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동이다. 꼭 섭취 전 전문가에게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 오독실 전남도산림자원연구소 임업시험과장은 "야생버섯은 되도록 섭취를 삼가고 만약 야생버섯을 섭취한 후 메스꺼움, 구토 등과 같은 중독증상이 있으면 반드시 가까운 의료기관에 섭취한 버섯을 들고 방문해 전문의 치료를 받아야 한다"며 "표고버섯, 꽃송이버섯, 목이



버섯 등 농가에서 재배한 버섯을 구입해 드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말했다. (문의) 전남도산림자원연구소 임업시험과 061-338-4242, 전자메일 shitate@korea.kr 김영주기자

응급환자, 매뉴얼 대로 신고 했으니 문제없다고?

뇌질환 응급환자 신고 불꽃놀이 장소로 운행했던 K유람선

지난달 27일 오동도에서 출발한 K유람선이 오후 8시 32분경 응급환자가 발생했다는 무전을 VTS로 보낸 후 약 30분 동안 무전 연락이 안 되었다는 제보가 들어왔다. 해경에 따르면 VTS로 8시32분경 신고를 받았고 경비함이 현장으로 출동하였다고 밝혔다. K유람선은 무전에 응답하지 않았지만 다행히 다른 경로로 유람선의 위치를 파악했으며 8시38분경 유람선 도착, 환자를 인계받아 해양공원에서 8시45분경 119구급차에 환자를 인계했다고 밝혔다. 해경은 무전은 되지 않았지만 빠른 출동으로 환자 인계에 어려움이 없었음을 전했고 K유람선 측은 매뉴얼대로 신고 했으니 문제될 것이 없다고 했다. 119구급대원에게 그 때 당시 환자의 상태를 문의했다. "환자는 47세의 여성으로 당시 의식이 없었으며 경련을 일으키고 있었다"고 했다. 그 날의 상황을 정리해보면 이렇다.



1. 응급환자가 발생했다.
2. K유람선은 VTS신고를 하고 5분 거리의 귀항이 아닌 정반대 방향인 불꽃놀이 장소로 갔다.
3. 해경은 응급환자의 상태와 위치를 묻는 무전을 계속 한다.
4. 무전에 대답이 없이 불꽃놀이 장소로 향하는 K유람선
5. 해경은 다른 경로로 위치를 파악, 환자를 119구급차로 인계
6. 119구급대 의식 없고 경련이 있는 환자 순천성가톨릭 병원으로 이송
해양교통관제센터(VTSC)는 관제 구역 안에서 이동하는 선박들을 관찰·통제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기관이다. 선박의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초동 대처 역시 해상

교통관제센터가 맡기 때문에 관제 구역에서 운항 중인 선박은 해상교통관제센터의 권고·지시에 따라야 한다. 그런데 당시 구역 내 운항하고 있던 선박의 제보에 따르면 응급환자가 발생했다고 무전을 보낸 유람선이 그 이후 해경 및 해상교통관제와 교신이 되지 않아 응급환자의 상태에 대한 질문과 유람선 위치를 묻는 무전만 계속 반복되는 상황이었다고 한다. 과연 진행상 문제는 없었던 건지, 여전히 도시락이 있는 안전불감증이 의심된다. 최형란기자

여수해경,경유 96리터 유출하고도 신고없이 현장떠난 유조선 적발

물양장에 정박 중인 유조선이 다른 선박에 기름을 공급하다 기름을 해상 유출하고도 신고와 방제 조치도 하지 않고 자리를 떠난 선장을 해경이 적발했다. 여수해양경찰서(서장 이철우)는 "지난 21일 오후 8시경 여수시 돌산읍 우두리 물양장에서 유조선 D호(149톤, 부산선적)가 C호(320톤, 유조선)에게 기름 공급하던 중 D호에 설치된 이송호스 카플링이 빠지면서 해상에 경유 96리터를 유출시킨 혐의로 D호 선장 K모(63세, 남) 씨를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조사 중이다"고 23일 밝혔다.

여수해경에 따르면, 22일 오전 1시 17분경 여수시 국동 수변공원에서부터 봉산동 수협 일원 해상에 기름띠와 함께 심한 기름 냄새가 난다며, 인근 항·포구에서 낚시꾼의 신고를 받고 경비함정 4척과 봉산해경파출소 구조정, 육상 방제팀, 해양환경공단 선박 등을 동원해 방제작업을 하였다. 아울러, 시료채취와 함께 수협부두 일원 폐쇄회로(CC)TV와 조류의 이동방향을 분석하고 선박 급유작업 동향을 파악·탐문한 결과 혐의선박 D호를 특정하였으며, 조사 결과 선장 및 선원들로부터 기름이 송 작업 중 경유가 해상으로 유출된 혐의를 시인하였다. 해경 관계자는 "기름 공급한 유조선 및 수급 선박 선장 및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며, "해상에 기름이 유출되면 지체 없이 해양경찰에 신



고와 함께 초동 방제작업을 해야만 최소한의 해양오염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D호는 21일 저녁 8시경 돌산 우두리 물양장에서 C호에게 경유를 이송하던 중 D호측 기름 이송호스 카플링이 빠지는 사고가 발생해 경유 96리터가 해상으로 유출되었으며,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유류 이송작업을 끝내고 부산항으로 이동하였다. 오은진기자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금 최대 2.5배 인상... 여수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개정

여수시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오는 15일부터 불법유동광고물 수거 보상금을 최대 2.5배까지 인상한다고 11일 밝혔다. 이와 함께 보상금 지급 방법도 20L 종량제봉투에서 5000원 권 전 통시장 상품권으로 변경한다. 5㎡이상 현수막 1매당 1000원 상당의 종량제봉투를 지급하던 것을

현수막 2매당 5000원 권 상품권 1매를 제공한다. 5㎡미만 현수막은 4매당, 벽보는 규격에 따라 50장과 100장 단위로, 전단은 1000장당 상품권 1매를 지급한다. 시민 누구나 현수막과 벽보, 전단을 수거해 가까운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에 가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김영주기자

시는 이번 사업을 위해 지난 6월 28일 여수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를 개정했다. 이달 17일부터는 주무부서에서 27개 읍면동을 방문해 추진상황을 지도 점검할 계획이다. 여수시는 지난 2009년부터 불법 유동광고물 보상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시민 2135명이 현수막 2382개, 벽보 2만 6339개, 전단 298만 3790개를 수거했다. 김영주기자



책임시공



철저한 현장관리, 안전관리 및 경제적인 시공으로
고객의 입장에서 먼저 생각하고 시공의 품질로 보답하겠습니다



주식회사 미주기업

대표 김성은

건설자재임대

비계설치공사

Tel. 691-7890, 682-7890
H-P. 010-3644-5859 Fax. 691-7896
여수시 조산로 233-18(덕양리 436-22)(소라면)

섬진강어류생태관, 남도한바퀴 연계 인기몰이

천연기념물 수달 하이파이브 쇼 등 볼거리, 체험거리 풍성 '여수 밤바다'로 유명한 여수 해양수산과학관 새로운 단장

8월 중순 관람객에게 선보일 예정

전라남도해양수산과학원(원장 오광남)은 전남 관광지 광역순환버스 '남도한바퀴' 상권에 섬진강어류생태관을 연계해 관람객들의 호응이 뜨겁다고 11일 밝혔다.

여름철 계곡으로 유명한 지리산 자락에 위치한 구례 간전면의 섬진강어류생태관은 최신 트렌드에 맞춰 실내·외 전시장을 독창적으로 바꾸고, 국내외 열대관상어 및 토종 민물고기 80여 종을 전시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남도한바퀴 상품과 연계한 결과 올 들어 7월 초 현재까지 5만9천977명이 다녀가 지난해 같은 기간(4만 3천44명)보다 39%가 늘었다.

어류생태관은 지리산 물줄기인 섬진강의 동·식물을 그대로 옮겨 놓은 듯한 볼거리와 먹이주기 체험, 어린물고기 방류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이고 있어 단체 관람, 가족단위 관람객, 청소년, 학

생들로부터 인기를 끌고 있다. 특히 보호 관리 중인 천연기념물 수달의 밥 달리는 하이파이브 쇼와 먹이 먹는 모습은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인기가 많아 생태관의 귀여운 마스코트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남도한바퀴'는 매주 화요일과 일요일 2차례 '섬진강 옛이야기(구례 하동 섬진강 옛길여행)' 코스로 섬진강어류생태관을 운영하고 있다. '섬진강 옛이야기'는 오전 8시 20분 광주에서 출발해 섬진강대나무숲길, 한국암화박물관, 섬진강어류생태관, 하동 화계장터를 거쳐 오후 6시 30분 광주로 돌아가는 코스다.

오광남 원장은 "앞으로도 어류생태관의 다양한 볼거리와 다채로운 체험행사 기획으로 방문객이 마음을 힐링할 뿐만 아니라 생태·체험 교육을 즐길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방문객 증가로 섬진강 주변 관광산업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여수 밤바다'로 유명한 여수의 해양수산과학관도 새로운 단장을 마치고 8월 중순 관람객에게 선보일 예정이다. 과학관에서는 파랑돔

등 해양생물, 직접 만져 볼 수 있는 체험장, '바다여행'을 주제로 한 3D영상 관람, 화석 및 운석 등 4천여 점을 관람할 수 있다. 최학환기자

[농사는 자연이다] <7>

퇴비차(堆肥茶)로 작물 키우기



하병언 이학박사/시민 국립경상남도농업생명원지리과학연구소

잘 발효된 퇴비는 땅의 보양이고 미생물의 집이며 밥이다. 이런 퇴비를 토양에 직접 넣지 않고 일반 차처럼 물에 우려서 그 물을 작물의 잎에 뿌리거나 토양에 넣어주는 방법이 있다. 퇴비차는 유기농업이 발달한 독일에서 널리 행해지고 있는 농법으로 퇴비에 좋은 성분, 즉 무기 미네랄 양분, 휴믹산, 풀빅산, 미생물 대사산물 등을 물로 우려내어 작물 생육 효과, 병해충 예방효과, 토양 입단화 효과, 토양내 유효 미생물 증진 효과 등을 동시에 거둘 수 있어 농사에 유익한 농법이라 할 수 있다. 요즈음 우리나라에서도 시설하우스 및 과수 농가, 또는 가족형 유기농밭 중심으로 퇴비차를 직접 만들어 사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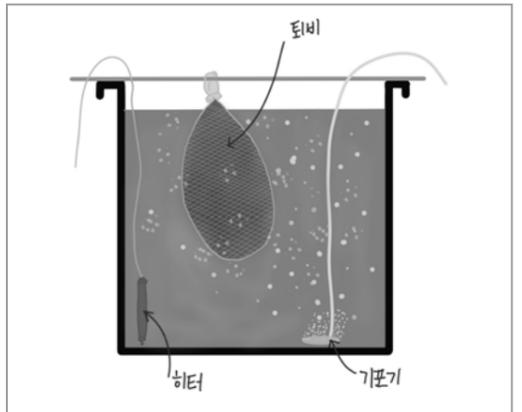
퇴비차를 만드는 방법은 간단하다. 1(퇴비) : 10~20 (물)의 비율로 잘 발효된 퇴비를 거름망(부직포, 밧줄, 한약다림추 솔포)에 넣고 공기를 넣을 수 있는 기포기를 설치하고 약 1~2일 동안 우려내면 된다. 토양에 관주하거나 엽면시시에는 약 10배 정도 물에 희석하여 사용하면 된다. 퇴비차가 완성되면 바로 사용하는 것이 좋은데 그 이유는 호기성 미생물이 공기가 없으면 사멸되기 시작하고 일부 무기양분이 공기중으로 날아가기 때문이다. 거름망은 비료 시비 시 물속에 알갱이 큰 퇴비 입자가 있으면 물 흐름이 막히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하다.

기포기는 잘 부속된 발효 퇴비에 많이 있는 미생물 중 호기성 미생물의 증식을 위해 필요하다. 공기를 물속에 풀어 넣어 주지 않으면 호기성 미생물은 증식에 어려움이 있고 혐기성 미생물이 증식되어 퇴비차의 효능은 떨어진다. 고품질 퇴비차를 만드는 데 필요한 물속의 용존 산소량은 퇴비차 제조 기간 내내 5.5ppm 이상으로 유지되어야 한다.

미생물 증식을 위해 당밀이나 화학비료를 넣어주기도 하고 주변 농업기술센터에서 제공하는 광합성미생물, 바실러스 미생물, EM 등을 전체 물 무게 대비 약 2% 이내로 넣어주면 된다. 퇴비차의 효과를 더욱더 증진시키기 위해서 암석가루, 휴믹산, 아미노산, 해조 추출물 등을 첨가하여 사용하여도 좋다. 또한 히트(head)기기를 사용하여 물의 온도를 20~25℃ 정도 높여주면 미생물의 활성은 더욱 올라간다. 퇴비차가 완성되면 구수한 냄새가 나야 한다. 악취가 난다면 퇴비차 제조가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용하면 안된다.

모차(毛茶)를 1m 이상 쌓아올린 후 물을 뿌려 차엽에 수분을 가한 후 천을 덮어 미생물 발효를 진행한다. 이런 과정을 약퇴(濕堆)과정이라 하며 미생물이 모차의 영양분을 삼아 증식하면서 쌓아둔 모차 더미에서 온도가 올라간다. 너무 과도한 온도는 보이차의 품질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차 뒤집기를 실시하여 호기성 미생물의 증식을 돕는다.

뒤집기는 약 60여일 동안 6~10차례 정도하며 차의 상태와 차방의 제조기술에 따라 달 뒤집기 횟수가 다르다. 퇴비차는 약 60여일 동안 6~10차례 정도하며 차의 상태와 차방의 제조기술에 따라 달 뒤집기 횟수가 다르다. 퇴비차는 약 60여일 동안 6~10차례 정도하며 차의 상태와 차방의 제조기술에 따라 달 뒤집기 횟수가 다르다. 퇴비차는 약 60여일 동안 6~10차례 정도하며 차의 상태와 차방의 제조기술에 따라 달 뒤집기 횟수가 다르다.



<그림> 박남훈, 퇴비차만들기

원래 잘 발효된 퇴비는 방선균과 미생물 대사산물의 영향으로 악취가 나지 않고 특유의 구수한 냄새가 난다. 악취가 나는 퇴비는 퇴비가 아니기 때문이다.

중국 보이차 중 보이숙차 제조 과정은 퇴비차 제조 과정과 유사하다. 차엽을 따서 위조(萎凋)과정(그늘에서 차엽 시들기), 살청(殺靑)과정(가마솥에서 차엽의 산화과정을 막기 위해 뜨거운 가마솥에서 차엽 볶기), 유념(揀)과정(차엽 비비기), 쇠청(靑)건조(유념이 끝난 차엽을 대나무자리 등에 넓게 펼쳐 놓고 햇볕에 말리는 과정)를 실시한

려 마신다. 이와 같이 잘 발효된 보이차가 사람의 몸에 좋듯 잘 제조된 퇴비차는 작물의 생육에 도움을 준다. 사람도 수시로 차의 종류를 달리하여 차를 마시듯 퇴비차에 투입되는 원재료를 달리하여 다양한 퇴비차를 제조하여 작물에 뿌려주면 화학비료 없이 농사를 지을 수 있다. 전문 농업인뿐만 아니라 도시농업하는 도시 농부들에게도 유익하다.

도시농부들에게도 유익하다. 전문 농업인뿐만 아니라 도시농업하는 도시 농부들에게도 유익하다. 전문 농업인뿐만 아니라 도시농업하는 도시 농부들에게도 유익하다. 전문 농업인뿐만 아니라 도시농업하는 도시 농부들에게도 유익하다.

인해광의 <해양바라기>



한해광 (사남해센터장)

살아있는 바다 숨 쉬는 연안 언제쯤 가능할까?

이 함께 어우러져 독특한 해양생태계를 구성하며 살아가고 있다. 바다생물 자원으로는 생물의 산란지 역할을 하고 있는 조간대와 조하대지역에 잘피 등이 서식하고 있어 바다를 건강하게 만들고 있다. 이곳엔 갯게, 붉은바발, 뽕게, 말뚝게, 방게, 가지게, 사시게, 풀게, 납작게, 철게와 흰발농게 등이 먹이사슬에 의해 살아가면서 다양성을 유지하고 있다.

지금 여수연안에서 볼 수 있는 수많은 해조류와 멸종위기종 또는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된 갯게, 붉은바발뽕게, 대추귀고둥, 기수갈고둥, 남방방게, 나팔고둥, 흰발농게와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된 상괭이 등이 다양하게 분포하고 있다. 또 경관자원으로는 항일암가는 길 해안선과 금오도 비렁길, 하화도 꽃길, 사도 거북바위, 장군바위와 추도의 기암절벽 등이 오랜 세월동안 파도에 깎여 아름다운 모습을 더해주고 있으며 섬이 바다위의 정원으로 충분히 장관을 연출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여수연안은 아

쉽게도 해안도로와 우후죽순처럼 들어서는 건축물로 인한 피해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아름다운 경관이 사라지고 있는 것이다. 또 연안습지가 자연스럽게 파괴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현상은 멸종위기종 2급이자 해양보호생물인 갯게, 붉은바발뽕게, 대추귀고둥, 기수갈고둥, 흰발농게가 여수에서 발견되고 나서도 연안개발이 지속적으로 이뤄져왔다. 이로 인해 이들 서식지는 위협받은 지 이미 오래다. 지금까지 체계적인 연안 조사가 올바르게 진행되지 못했고, 관리부실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결국 자기지역의 연안습지는 시민이 주축이 되는 조사를 해양한다는 결론이다.

특히 상괭이는 해양보호생물로 지정, 야생 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서 보호종으로 지정된 국제적인 멸종위기종이다. 여수는 1년 동안 평균 수백여 개체가 발견되고 있으며,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는 지역은 경도-개도-조발도수역등지에

서 상괭이가 즐겨먹는 송어, 전어, 대하 등의 먹이가 풍부하고 빠른 조류로 유영력이 약해 먹이 사냥이 쉬운 지역이다. 이를 상괭이 관찰 생태관광으로 유인바다위의 정원을 더 아름답게 만드는 대안일 수 있다는 것이다.

아직도 여수연안은 생태관광이 없다. 금오도 비렁길, 하화도 꽃길에 여수생태관광을 대변해주고 나서도 연안개발이 지속적으로 이뤄져왔다. 이로 인해 이들 서식지는 위협받은 지 이미 오래다.

여기에 바다쓰레기가 여수연안과 해양관광의 걸림돌로 자리 잡고 있다. 바다쓰레기는 이제우리여수가 슬기롭게 대처해야 할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바다쓰레기 수거 및 처리가 잘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바닷가에 바다쓰레기 적치장으로 변하고 있고, 정작 많이 밀려 온 곳은 손도 못 대고 있는 실정이다. 섬과 무인도는 말할 것도 없다. 여수시의 바다쓰레기 수거 및 처리 정책을 다시 한 번 살펴봐야 할 것이다.

제7회 여수 청소년 문학상 작품공모

(시, 소설)

대상 100만원, 우수상 50만원 등 총 창작지원금 460만원!

주최 여수청소년문학상운영위원회
주관 (사)한국문인협회여수지부 ☎ (061) 653-2002
후원 (사)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여수지회

시상내역	구분	대상	우수상	장려상	가작	
시	1명	창작지원금 100만원	1명	창작지원금 50만원	4명	창작지원금 10만원
	2명	창작지원금 20만원	2명	창작지원금 20만원	4명	창작지원금 10만원
소설	1명	창작지원금 100만원	1명	창작지원금 50만원	4명	창작지원금 10만원
	2명	창작지원금 20만원	2명	창작지원금 20만원	4명	창작지원금 10만원

공모기간 2019년 5월 ~ 2019년 10월 20일 (마감일 소인이 찍힌 응모작까지 유효)

응모자격 여수 지역 소재 중·고등학생 재학생 및 14세 ~ 19세 지역 거주 청소년

공모부문 및 분량 시: 3편 이상 소설: 단편소설

작품내용 문학성이 뛰어난 순수 창작 작품으로 주제는 자유

원고접수처 (우 59712) 전남 여수시 여서1로 108 (여서동 3층) 여수청소년문학상운영위원회

- 응모방법
- 작품내용은 A4용지에 작성하여 2부를 제출하고 작품 내용 외 일체의 표시를 해서는 안됩니다.
 - 응모작품 내용과 별도로 인적사항(이름, 주소, 전화 등)을 앞면에 별지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우편접수만 가능하고 결봉투에 "여수청소년문학상 응모작품"이라 표시 바랍니다.

- 유의사항
- 순수창작 작품이어야하며 표절한 사실이 확인 될 경우 입상이 취소되며 상금은 회수합니다.
 - 접수한 원고는 반환하지 않으며 입상작에 대한 저작권은 운영위원회에 귀속됩니다.
 - 운영위원회에서 별도 심사위원을 구성하여 심사하여 11월 중순 이후 개별통지(당선자에 한함)

A형 간염, 실온에서도 몇 개월 이상 생존이 가능 오염된 물 음식 통해 주로 전파

보건 칼럼



김명숙 전, 돌산병사보건소장

정의

간염 바이러스의 한 종류인 A형 간염 바이러스(hepatitis A virus(HAV) 감염에 의해 발생하는 급성 간염의 한 종류로서 오심, 구토, 전신쇠약감, 황달 등의 간염증상과 간기능 검사 이상을 보이는 경우를 말한다.

원인

A형 간염은 분변-경구 감염(fecal-oral transmission)이 주된 감염 경로입니다. 대변을 통해 배출된 A형 간염 바이러스는 실온에서도 몇 개월 이상 생존이 가능하므로 오염된 물과 음식을 통해 주로 전파된다.

증상

A형 간염 바이러스가 몸에 들어오면 평균 4주(15~50일) 가량의 잠복기를 거친 이후 임상 증상이 나타나게 된다.

이러한 임상 증상은 주로 비특이적인 증상으로서 감기몸살처럼 열이 나거나 식욕이 감소하고, 구역질과 구토, 전신적인 쇠약감, 복통과 설사를 한다. 성인에서는 그 며칠 후에 황달이 생겨서 눈이 노랗고 소변 색깔이 진해질 수 있습니다. 어린이가 감염된 경우는 거의 증상이 없으며 연령이 높을수록 증상이 심해진다.

경과/합병증

임상증상은 대부분의 경우 2개월 이상 지속되지 않으며 대부분 합병증 없이 회복되고 만성 간염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그러나 일부(약 5% 이내) 환자에서는 질병이 6개월까지도 지속될 수 있다.

또한 A형 간염은 급성신부전, 재발성간염, 담즙정체성간염, 급성췌장염, 혈구감소증 등 각종 다양한 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다.

가장 중증 합병증은 간세포가 심각한 정도로 손상을 받아서 발생하는 급성 간부전으로서 환자의 의식이 나빠지게 된다. 급성 간부전 발병 시 약 50%의 환자에서 그 며칠 후에 황달이 생겨서 눈이 노랗고 소변 색깔이 진해질 수 있습니다. 어린이가 감염된 경우는 거의 증상이 없으며 연령이 높을수록 증상이 심해진다.

그러나 이러한 급성 간부전이 발생하는 빈도는 전체 급성 A형 간염 환자의 약 1%에 불과하다.

카메라를 이용한 범죄

법률 칼럼



한정운 변호사

1.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촬영하는 행위가 범죄행위가 되는 경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약칭 : 성폭력처벌법)에서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 또는 사생활을 촬영하는 행위를 범죄행위로 처벌받지

않는다. 촬영한 자는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카메라 등을 이용해서 타인의 의사에 반해서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는 행위는 명백한 범죄행위로 처벌을 받게 된다.

2. 인터넷 화상채팅을 하다가 상대방이 신체 부위를 노출하자 휴대전화를 이용해 컴퓨터 화면을 촬영하였다면?

우리 판례는, 「촬영의 대상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라고 보아야 함이 문언상 명백하므로 위 규정의 처벌 대상은 '다른 사람의 신체 그 자체'를 카메라 등 기계장치를 이용해서 '직접' 촬영하는 경우에 한정된다」고 판시하였다.

따라서 다른 사람의 신체 이미지가 담긴 영상을 촬영하는 행위는 성폭력처벌법으로 처벌받지

않는다. 3. 카메라 기능이 탑재된 휴대폰으로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하던 도중 경찰관에게 발각되어 저장버튼을 누르지 않고 촬영을 종료하였다면?

우리 판례는, 「최근 기술문명의 발달로 등장한 디지털카메라나 동영상 기능이 탑재된 휴대전화 등의 기계장치는, 촬영된 영상정보가 사용자 등에 의해 전자파일 등의 형태로 저장되기 전이라 하더라도 일단 촬영이 시작되면 곧바로 그 촬영된 피사체의 영상정보가 기계장치 내의 RAM(Random Access Memory) 등 주기억장치에 입력되어 임시저장되었다가 이후 저장명령이 내려지면 기계장치 내의 보조기억장치 등에 저장되는 방식을 취하는 경우가 많고, 이러한 저장장치를 취하고 있는 카메라 등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이 이루어

어졌다면 그 범행은 촬영 후 일정한 시간이 경과하여 그 영상정보가 그 기계장치 내의 주기억장치 등에 입력됨으로써 이미 기수에 이르른 것이지, 그 촬영된 영상정보가 전자파일 등의 형태로 영구저장되지 않은 채 사용자에 의해 강제종료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미수에 그쳤다고 볼 수는 없다.」라고 판시하였다.

즉, 촬영을 시작하여 일정한 시간이 경과하였다면 설령 촬영 중 경찰관에게 발각되어 저장버튼을 누르지 않고 촬영을 종료하였다더라도 위 범행은 미수가 아니라 이미 기수에 이른 것이어서 성폭력처벌법상의 기수 책임을 지게 된다.

이와 같은 범죄는 그 유형으로 인한 피해 또한 가늠할 수 없을 정도이므로, 범죄행위 이후의 처벌도 중요하겠지만, 근절을 위한 예방책도 필요하겠다.

근막 통증 증후군 (Myofascial Pain Syndrome)에 대해서

의료 칼럼



이준형 원장

장마철 혹은 습한 날씨로 인해서 목이 지끈거리고 무겁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다. 이런 날씨에 많이 생기는 근막 통증 증후군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근막 통증 증후군은 목덜미, 허리, 어깨, 종아리, 팔꿈치 안쪽, 갈비뼈 등 특정한 유발 부위

근골격의 통증을 특징으로 하는 질환이다. 흔히 '담에 걸렸다'고 말한다.

발생 원인으로는 오랫동안 책상에 앉아 있거나 같은 자세로 장시간 컴퓨터를 사용하는 등 잘못된 자세를 취하는 경우, 목이나 허리의 퇴행성관절염과 연관이 있을 경우, 근육을 과도하게 사용하였을 때나, 외상, 스트레싱 등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다.

나타나는 증상은 주로 근육 통증이 발생한다. 이때 통증은 깊고 쉬는 듯하며 타는 듯한 느낌이 특징이다.

치료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약물 요법은 소염 진통제나 근육 이완제의 복용이 있다. 주사 요법은 침을 맞거나 생리 식염수, 국소 마취제, 스테로이드 혼합 용액 등을 통증 부위에 주입

한다. 전기 자극 요법은 마사지, 초음파를 이용한 물리 치료, 레이저나 적외선 치료기 조사 등이 있다.

이와 요법은 수동적으로 근육을 풀어준다. 도포 요법은 미지근한 습포를 찜질해 해준다. 냉각 요법은 매우 심하거나 자주 재발하는 경우에는 냉각요법을 이용하여 통증을 유발하는 부위를 냉동시킨다.

예방법은 장시간 같은 자세로 있는 경우 중간에 어깨나 허리 근육을 풀어 주는 휴식 시간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통증을 유발시키는 자세나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피한다. 출거나 습한 곳에 노출되면 통증이 생길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급성기는 대부분 2~6주 내에 치료되지만, 3~6개월 이상 치료가 길어질 때는 치료를 받아 보는 것이 좋다.

은행 대출금리 왜 개인마다 다를까요?

금융 칼럼



김충열 여수한려새마을금고 상무

서민들 중 목돈을 금고에 쌓아 두고 있는 사람이 아마도 있을

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목돈이 필요할 때 대출을 받는다. 우리가 주택이나 자동차를 구입할 때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이렇게 돈을 빌리게 되면, 이에 대한 대가로

이자를 납부해야 한다. 빌린 돈(원금)에 대한 이자의 비율을 '이자율' 또는 '금리'라고 한다.

이자에 대한 최초의 개념은 고대 근동 지방의 수메르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수메르어로 이자는 mas라고 하는데, 이는 동시에 어린양을 뜻하는 말이기도 한다. 수메르와 같은 근동, 특히 이라크 지역에서는 예나 지금이나 소작인들이 가축을 기를 경우 빌린 땅의 범위 안에서만 방목할 수 있다. 그런 까닭에 지주가 우물을 발견하거나 관개 시설 확장 등을 통해 방목지를 넓혀 가축수가 늘어날 경우, 소작인은 늘어난 가축 수에 비례해 소작료로 어린양을 납부해야만 한다. 이처럼 이자는 가축 수의 증가에 따라 어린양을 지불하는 방식 소작료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는데, 바로 이것이 이자

의 기원이다. 금융회사는 여러 종류의 금리 체계가 있다. 일반적으로 대출금리 구조는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해 산정한다. 여기서 기준금리에는 내부기준금리, 시장연동금리, 기타 등이 있는데, 기준금리는 개별 금융회사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시장 전체의 자금조달비용 등이 반영되어 시장에서 결정된다. 전국은행연합회가 시중 8개 은행의 자금조달비용을 종합해 산출하는 코픽스(COPIX, 자금조달비용지수)가 대표적이다.

그러나 가산금리는 각 금융회사가 산정한다. 거래자의 신용도 및 기여도, 여신기간, 기업규모 등을 감안하여 결정한다. 금융회사는 그동안 거래실적이 좋은 사람에게는 금리를 인하해 주기도 한다. 반면 소득이 없거나 과거 연체기록이 있는 사람에게 더 많은 이자를 요구하거나 대출을 거절하기도 한다.

금융회사들도 경영을 잘해서 회사의 신용도가 올라가면 금융 시장에서 더 싸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그러면 당연히 고객으로부터 받는 대출금리도 낮아질 수 있다. 또한 소비자들은 돈을 빌린 후 대출 당시보다 개인 신용도가 올라 갔거나 직장 변경(중소기업→대기업)이 있을 경우 대출금리를 낮춰 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이처럼 대출금리는 소비자 신용도에 따라 결정된다. 금융당국으로부터 금융회사에게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및 금융상품에 대한 이해를 계속 주문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가산금리 체계가 더욱 투명해질 것이다.

기사제보 · 독자투고 : 061)654-8885, 광고 및 구독문의 : 061)654-8885

여수일보사 하루라기(살기 좋은 여수 만들기)를 위하여 시민 여러분의 제보를 받습니다. 시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이익, 공정한경쟁 등을 침해하는 행위를 제보해주세요. 권력형 비리부터 우리생활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생활밀착 부패까지 다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우리사회의 어두운 길목을 시민 스스로 하루라기를 불어 환하게 밝히는 등불이 됩시다. 제보방법 : 전화 061-654-8885, 061-810-0011 메일 ysbtv@harmail.net

2019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인력파견형 구직자 및 구인업체 모집

어제를 잊고 내일을 설계하라! 준비되셨습니까?

시니어 생상품 판매합니다

- ♣천생연분 떡빵 ♣은모닝 도시락
- ♣고소미 참기름 ♣황금 두부
- ♣궁's푸드 천생연분 김치
- ♣바다내음 김부각 ♣여수 꽃빵
- ♣112카페, 카페다시봄

..... 구직자

- 구직의뢰** - 만 60세 이상 어르신 이력서, 참여신청서 작성
- 구직지원** - 1:1상담 · 구인처 연결 · 취업 컨설팅
- 교육훈련** - 소양교육 · 맞춤형 취업교육
- 취업** - 사후관리

.... 구인업체

- 어르신채용계획** - 만 60세 이상 어르신
- 구직지원** - 1:1상담 · 구직자 연결 · 채용 컨설팅
- 채용** - 사후관리

모집직종 : 주유원, 경비원, 생산직, 조경, 환경미화원, 주차장관리원 등

일 자리를 찾는 어르신과 어르신을 채용하고자 하는 모든 곳 지금 전화하십시오. 바로 연결드리겠습니다!

노인일자리전담기관
여수시니어클럽
Yeosu community Senior Club

전화 ☎ 692-4555/9

팩스 ☎ 692-4556

오시는길 <여수시 만흥2길 9>

영진지동지각원 여수교회

여수시니어클럽

만성리해수욕장 >

우동식의 <시 읽어주는 남자>

키스 - 구스타프 클림트

첫볼을 스친 그 바람이 수상하다
모듬밭로 엮보던 그 눈길의 수상하다
허리춤 휘감아오던 그 손길의 수상하다
고 생각하는 순간,
와락 디밀고 들어온 그애 아니던가요
그때 그대도 물길로 열렸을까요
함께 출렁였을까요



신병은

아릿한 현기증이 수상하다
식물성 풀벌레소리가 수상하다
상음 발랄한 바람의 화법이 수상하다
고 생각하는 순간,
마구 아찔한 유혹에 찻던 그애 아니던가요
그때 그대도 꽃이었을까요
함께 고요했을까요

적막하다고
그림다고
혼자말로 운을 떼었을 뻔인데
불쑥 한발 침묵의 깊이로 디밀었던 당신
그날, 온통 꽃이었지요

-제5회 한국문학인상 수상 작품-

/ 詩詩한 이야기 /

그녀의 삶이 들어 있는시와 그림



우동식

이 작품은 한국문인협회가 주관하는 올해 제5회 한국문학인상 수상
작품이다.
구스타프 클림트의 '키스'라는 작품이 모티브가 되어 신선하고 발
랄한 상상력과 함께 섀플과 그리움이 짙게 배여 나오는 시이다.
시인은 30년의 시 경력과 한국문단의 중견 문학인 일뿐 아니라 그
동안 많은 미술 평론을 했고 이번에 <미술평론집>을 출판 할 정도로
미술평론에도 조예가 깊다.
그림을 읽어 내는 시인의 눈빛은 그윽하고 깊으며 본질을 향한다.
예술행위라는 것이 위대한 창조 활동을 통해 결국 인간의 본질을 들
여다보는 노력이라면 시와 일맥상통 한다.
미술 감상은 인간 읽기이고 인간을 이해하고 나 자신을 이해하기
위한 활동이다.
잭슨 폴록이 한 말처럼 '그림은 그 나름의 삶이 있다' 클림트는 여
자를 육체적 사랑과 플라토닉 사랑의 상대로 이분법적으로 대한 분열
적인 사람이었다. 클림트의 여인 중 전자를 대표 하는 이가 치머만인
고 후자를 대표하는 이가 에밀리 풀비게였다고 한다.
이 그림 '키스'는 그의 운명의 연인인 에밀리 풀비게라고 한다.
관능적인 여성 모티브와 유려한 선, 경멸을 담은 듯한, 무심한 듯한
표정을 한 팜파탈의 이미지, 화려한 색채와 장식적이고 기하학적
인 장식 모티브로 대표되는 그의 작품들은 상징적이고 동원적인 이미
지로 관람객들을 매혹 시켰다.
클림트의 작품 키스는 꽃이 잔뜩 핀 벼랑위에 남녀가 서로 껴안고
있다.
그 바람, 그 눈길, 그 손길의 수상하다. 남자는 여자의 뺨에 입맞춤

을 하고 여자는 그 감흥에 몰입해 있다, 고 생각
하는 순간, 와락 디밀고 와 물길에 열렸고 출렁
거렸다.
여자의 손가락이 말려들어 가는 모습에 그 감
흥의 정도를 짐작 할 수 있다.
짜릿하고 달콤한 첫 키스를 경험하는 황홀한 순간 현기증이 일고
풀벌레소리가 자지르지게 들렸고 바람의 교태로 읽혔다. 고 생각하는
순간, 아찔한 유혹과 침묵의 깊이로 불쑥 꽃이 피었다. 클림트의 벼랑
위의 사랑이 황금 꽃밭이요, 꽃으로 피어났다.
직사각형 패턴의 남성성의 의상도 원형패턴의 여성성의 의상도 금
빛 찬란한 하나로 화해되어 경계나 구별이 사라지고 단단하게 결합
되어 있는 모양이다.
이 시에서 '그날'이라는 한 단어가 그림과 시, 상상과 현실, 과거
와 현재, 가 만나는 교묘한 지점이다.
분해와 해체 그리고 아슬아슬한 설렘으로 재구성한 신(神)적 경
지의 작품으로 보인다.
클림트의 그림 해석을 통해 시를 창작하고 있고 시를 통해 새로운
그림을 형상화하고 있다.
클림트는 플라토닉의 사랑과 육체적인 사랑을 이 그림에 담았고 그
그림을 확장하고 상상력을 더해 이 시는 표현 해 주고 있다.
상상력을 잘 다스려서 기묘한 것을 만나게 되면 그 정신은 사물과
함께 노닐게 되는 모습이다. 그 앞에서 경계는 무장 해제 되고 풀리
게 되며 온통 꽃으로 피어날 뿐이다.
'숨이 훌쩍 넘어 갈 뻔한 키스'가 그림다.

관기초등학교 초록별 감성교육...동시낭송

여수 관기초등학교에서는 아이
들이 자연을 노래하고 자연과 함께
하는 마음을 담아 동시낭송회를 주
기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조속진교장은 "오래전부터 사랑
하는 어린이들을 아름다운 별의 이
미지를 그리며 STAR 교육을 지향
해 왔다."라고 말하며 "배움, 희
움, 기쁨으로 함께 가꾸어가는 관
기 STAR 교육'을 위해 본교의 홈
페이지가 정보교류의 장으로서교
육공동체가 함께 꿈꾸는 행복한 학

교가 되기를 소망한다."라며 시낭
송을 하는 아이들을 흐뭇한 미소로
바라봤다.
◆ S(Smart)배움을 즐기며 스스
로 학습하는 어린이
◆ T(Talent)꿈과 소질 개발로
나를 가꾸는 어린이
◆ A(Art)자연과 더불어 몸과 마
음이 튼튼한 어린이
◆ R(Relationship) 나눔과 배려로
함께 어울려 사는 어린이
최향란 기자



▲관기초등학교 시낭송회 및 사회전 활동

여수소방서, 장애인 재활지립장 소방안전교육

여수소방서(서장 김용호)
는 지난 29일 여수시 화강중
소재 장애인 재활 지립장
중사자 등 40여 명을 대상으
로 심폐소생술 등 소방안전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은 재난약자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생명존
중 문화를 확산하고 응급상
황 발생 시 대처요령 교육으로 초
기 응급처치능력 향상을 위해 추진
됐다.
주요 내용은 ▲119신고방법 등
응급환자 발생 시 대처요령 ▲소화



정·육내소화전 사용법 ▲심폐소
생술 이론·실습 ▲자동심장충격
기 사용법 ▲기도폐쇄 시 응급처치
등이다.
송연선기자

송정현 미용장의 <머리카락이야기>-7

하얀 눈꽃가루가 머리카락에 내려?

머리카락에 눈이 내렸어요~ ~ 눈이라는 단어만
봐도 마음이 환해진다. 하얀 눈꽃 가루가 머리카
락에 내려? 뭐지? 궁금할 것이다. 하얀, 눈, 꽃, 가
루, 이쯤만으로도 예쁜 조합!
하얀 눈꽃 가루는 천연 식물성 단백질과 천연
알로에 성분, 특히 복합물질(미네랄)을 킬레이트
결합하여 염색이나 펌 화장품에 녹는 속도가 빨라
헤어 시술과 클리닉이 동시에 가능한 두피와 피부
의 자극을 최소화하고 저자극 고품질 제품으로 미
용실에서 펌이나 염색 등 시술에 사용하는 헤어제
품이다.
미용을 정의할 때 예술이다. 수학이다. 과학이다
고 말을 한다.
다 맞는 말이다. 우후죽순 풀처럼 마구 자란 머
리카락을 디자인해서 멋진 스타일을 창작하는 일
은 분명 예술이다. 이미지가 결정되는 길이 설정,
디자인을 위한 각도 계산은 수학이다. 펌이나 염
색, 클리닉을 할 땐 단백질로 이루어진 머리카락
에 치올리콜린산 암모늄 시스템인 아민 등 화학물
질을 이용하여 펌타이트 결합, 수소 결합, 이온 결
합, 시스틴 결합 등 환원, 산원 등의 화학적 지식
이 필요하기에 과학이다.
해서 요즘 미용인들은 다양한 연출을 표현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교육을 받는다. 컷, 펌, 염색 업
스타일 등 미용실에서 쓰이는 기법에 필요한 교육
은 기본이고 거기에 필요한 모발 과학, 두피진단,
헤어 컬러링 같은 전문적인 분야에 경영교육, 심



▲송정현 미용장

리교육 까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로 통한다. 고객의 만족스러
운 스타일을 위한, 고객의 찰랑거리는 머릿결을
위한...
머리카락은 열어 볼 수 없는 사람 마음 같다. 끊
입없는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하얗고 예쁜 눈 꽃송이가 내려앉은 듯 보기만
해도 기분 좋아지는 머릿결을 위해 오늘도 파이
팅!!

최저가 판매 최고가 매입

롯데·신세계(E마트), 주유, 문화상품권
금강(랜드로바)상품권 할인·판매, 매입

상품권 할인전문점
티켓나라



♣ 찾아오시는 길

성산공원



대표 이 연 심

전남 여수시 무선8길 9
(선원동 롯데마트 후문 앞)

TEL : 061) 692-4488
061) 692-4489

H·P : 010-8613-5005

“물 가치 배우고 체험 학습 통해 물의 소중함 느낀다”

장흥군 (주)한화케미칼과 함께하는 ‘탐진강 물축제’

유니세프와 전남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공공요금 정산 금액 제외한 수입 3천만원 전달

‘물의 소중함과 물사랑 체험’을 위한 체험 학습으로 한화케미칼 후원으로 여수지역 아동 35명이 여름 ‘물’ 대표 축제로 자리 잡은 제12회 장남진 장흥 물 축제에 다녀왔다.

1일 장흥군에 따르면 이날 막을 내린 축제에는 지난달 26일 개막 이후 모두 51만명이 탐진강을 찾은 것으로 발표했다.

장흥 물축제를 체험하며 물의 소중함과 물사랑을 체험한 여수지역 아동들은 이번 체험의 주제로 “물이 없으면”이었는데 우리가 평소 애용하지 못했던 물의 소중함을 직접 몸으로 느끼고 우리가 기쁘게 즐긴 것이 작은 도움이 되어 유니세프에 전달된다는 점에 더욱 뜻깊은 체험임을 깨달은 소중한 시간이라고 말하고 또 여러가지 방법으로 간접적으로 알아본 귀중한 시간이라고 했다.

장흥군은 물 축제장에서 유니세프와 전남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공공요금 정산 금액을 제외한 수입 3천만원을 전달했다.

물 축제 수익금은 매년 유니세프 물 부족 국가, 사회복지 기관 등에 기탁된다.

장흥군 장흥군수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여름 축제로 한 단계 진화한 모습을 볼 수 있었다”며 “피약



별 이래 땀 흘린 자원봉사자, 지역민, 공무원들 덕분에 성공적으로 행사를 마쳤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물사랑 물의 소중함’

을 느끼는 행사인 여수지역 아동 체험에?후원을 한 주)한화케미칼 담당자는 “물의 소중함을 한눈에 보여주는 좋은 체험의 시간이 된 것

같아 흐뭇하다”고 말하며 “사는것의 조건에는 물과 공기 햇살인데 아직 까지 물에 대한 소중함을 모르고 있다. 이번 기회로 우리 지역 아동

들과 함께 물의 소중함을 깨닫는 계기가 될 것 같다.”라고 말하며 물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밝혔다. 최항민기자. 사진 김영주기자

바르게살기운동 여수협의회 사랑의 쌀 기증



바르게살기운동 여수협의회 제 9대 회장으로 박정완씨가 선임되면서 취임식 때 스폰 받은 쌀을 여수시 관내 어려운 수급자를 위해 기증하였다.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는 바르게살기운동을 선도하고 이를 확산시키기 위해 국민의 자발적 참여에 의해 설립한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을 지원·육성함으로써 바르게살기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발전을 도모하고, 나아가 밝고 건강한 국가·사회건설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바르게살기운동 여수협의회 관계자는 “나보다는 남을 먼저 배려하고 웃어른을 공경하며 진실, 질서, 화합의 기본 이념을 바탕으로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회원 모두는 ‘바른 생각 바른 행동 바른 미래’를 만든다. 바르게 살면 미래가 보인다”라는 슬로건으로 더불어 잘사는 사회를 만들기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10일 취임식을 갖은 9대 박정완 회장은 “아름다운 여수를 아끼고 보호하고 바르게 발전시키기 위하여 우리 바르게살기운동여수

협의회가 앞으로도 지속적인 노력과 화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여수시민이 함께 소통하고 어려운 이웃과 정을 나누는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는 포부와 함께 “역대회장님들과 회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속적인 협조와 지도 부탁드립니다.”는 바람도 언급했다.

이수진 여성회장은 “박정완 회장을 도와 서로 믿고 의지하며 조화로운 여수만들기에 힘을 보태겠다. 박정완 회장님께서 앞으로 바르게살기운동여수협의회가 여수지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바른사회만들기에 앞장서도록 큰 힘이 되어 주실 것으로 믿는다.”며 축하의 말을 전했다.

한편 바르게살기운동 여수협의회는 도서 지역 소년소녀 가장을 초청하여 상호간 교류 활동을 통해 영남·호남의 지역감정을 해소하는데 일조하였으며 부랑인시설에 위문품 전달과 감자 담그기 봉사활동을 하였고, 독거노인과 지적장애인들에게 수저첩, 부항, 무료 이발 등을 실시하였다.

이규원 기자

한 끼 사랑을 나누는 “사랑해 빨간밥차”

수육, 배추김치, 오이냉채, 고추된장무침, 밥, 수박과 떡, 요쿠르트, 커피 등 모두 제 역할 묵묵히 하는 편안하고 사랑이 넘치는 시간

<칭찬합니다!>

금호폴리텍의 사회공헌활동 캠페인 ‘사랑해 빨간밥차’가 26일 오전 9시 무선 선산공원에 됐다. 습하고 무더운 날씨에 구슬땀을 흘리며 어르신들을 위한 무료급식이 실시됐다. 빨간밥차는 오전 9시부터 준비 작업을 하여 11시 30분부터 배식이 시작되는데 약 140여명의 어르신들 식사가 제공되었다. 어르신들은 9시 이전부터 선산공원에 모여 따뜻한 한 끼를 기다리며 즐거운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 오늘의 식사 메뉴는 수육, 배추김치, 오이냉채, 고추된장무침, 밥, 후식으로 수박과 떡, 요쿠르트, 커피가 준비 되었다.

금호폴리텍 최영선 공장장은 “이제부터 무더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어르신들의 건강이 염려되는 시점이라 수육을 준비했다. 맛있게 드시고 여름 거뜨하게 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식사 준비를 돕기 위해 나온 자원봉사 주민들은 정성과 사랑으로 정성껏 음식을 만들었다. 모두 오랜 세월 손발을 맞춘 사이라서 눈빛만 봐도 척척 두말이 필요 없이 손 빠르게 진행되었다. 드디어 기다리던 식사 시간~ 수육이 넉넉하게 준비되어 있어서 두 번 세 번 리필 되었고, 식사를 마치고 가시면서 “감사히 잘 먹었다”고 몇 번이고 인사를 하시는 어르신들의 손을 꼭 잡아 주는 금호폴리텍 직원들이다. 직원들은 식사를 마친 자리를

정돈하고 식탁을 깨끗하게 닦아서 창고 안으로 다시 정리해 두었다. 직원들이 테이블을 정리하고 그릇과 숟가락 등을 거두 오는 사이에 자원봉사를 나온 주민들은 식사를 서둘러 했다. 편하게 안지도 못하고 서서 먹는 밥인데도 얼굴에 웃음 가득하다. 봉사자들이 설거지를 하는 동안 이제는 직원들이 식사 하는 시간, 서로의 순서와 담담이 정해져 있어서 겹치거나 소란스럽지 않다. 식사를 하시는 어르신들도 봉사자원 주민들도, 금호폴리텍 직원들도 모두가 제 역할을 묵묵히 하는 편안하고 사랑이 넘치는 시간이었다.

최항민기자



올 여름 휴가는 전남 농촌마을에서 즐거운 추억 만들기

전남도, 체험, 휴식, 역사문화탐방 3가지 테마 6곳 추천

여수안포마을, 너른 갯벌 다양한 해산물 밥상 한옥에서 하룻밤



전라남도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가족과 함께 즐거운 추억을 만들 수 있는 농촌 여행지 6곳을 추천했다.

추천 농촌마을은 체험, 휴식, 역사, 문화탐방, 3가지 테마에 각각 2개소씩이다. 다양한 레포츠와 체험이 가능한 곡성 가정마을과 신안 임지만났네 마을, 청정한 자연이 몸과 마음을 여유롭게 해주는 순천 용오름마을과 여수 안포씨마을, 유서 깊은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쉬는 화순 모산고인돌마을과 강진 녹향월촌마을이다.

곡성 가정마을은 섬진강 래프팅 체험, 천문대 별자리 관측, 질러인, 자전거 하이킹 등 이색 체험거리가 많다. 인근 곡성기차마을까지 이어주는 가경역이 있어 낭만적인 기차 여행도 가능하다.

신안의 임지만났네 마을은 돌림의 섬 입자도에 위치해 있다. 갯벌, 카약, 바다 동굴 트래킹부터 최첨단 드론 체험까지 즐길 수 있는 아름답고 풍요로운 마을이다. 순천 용오름마을은 생명력 넘치는 숲과 맑고 깨끗한 계곡이 있는 청정마을이다. 시원한 숲과 계곡이 편히 쉬면서 몸과 마음에 활력을 불어넣고, 야산의 나무, 열매, 곤충 등을 체험하며 자연을 깊이 들여다볼 수 있다.

여수 안포씨마을은 농촌과 어촌의 매력이 한데 어우러져 있는 편안하고 고요한 마을이다. 너른 갯벌에서 잡히는 다양한 조개류로 만든 해산물 밥상과 정갈 넘치는 한옥에서의 하룻밤은 잊을 수 없는 추억을 만들 수 있다. 화순 모산고인돌마을은 566기의 고인돌이 신비롭고 예스러운 정취를 자아낸다. 고인돌이 처음 생성된 당시의 모습이 잘 보존돼 있어 선사시대의 생활상, 문화, 정신세계까지 엿볼 수 있는 소중한 유적지다. 강진 녹향월촌마을은 월출산 남쪽 아래 9개 마을로 이뤄졌다. 각 마을이 개성 있는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인근에 다산초당, 영랑생가, 백운동 정일, 무위사, 고려청자박물관, 남도유배길 등 역사문화자원이 많아 천천히 둘러보며 여유롭게 사색하기 좋다. 여행지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마을 누리집이나 전화, 농촌관광 포털 웹툰(www.welchon.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여수 안포씨마을은 농촌과 어촌의 매력이 한데 어우러져 있는 편안하고 고요한 마을이다. 너른 갯벌에서 잡히는 다양한 조개류로 만든 해산물 밥상과 정갈 넘치는 한옥에서의 하룻밤은 잊을 수 없는 추억을 만들 수 있다.

전라남도는 이번 농촌 여행지 선정·홍보와 함께 관광객이 농촌에서 깨끗하고 안전한 휴가를 보내도록 농촌체험휴양마을, 관광농원, 농어촌민박 등에 대한 안전·위생 관리 실태 점검도 추진한다.

전라남도 관계자는 “농촌은 관광과 레저, 휴식과 치유, 교육과 복지의 공간으로 역할이 커지고 있다”며 “전남은 친환경농업에 이어 농촌관광 분야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여행지로 손색이 없는 만큼, 농촌의 활력 회복을 위해 많은 관광객이 전남의 농촌을 찾아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오은진 기자

학교당방 이혜경 영양교사, 음악이 흐르는 관기레스토랑

오케스트라 연주 분위기 있는 식사 제공... 급식의 품격 갖춘 관기초등학교

단체급식, 특히 자녀는 아이들을 위한 건강과 입맛은 기본, 학교급식의 즐거운 변화를 위해 노력하는 초등학교가 있다.

글로벌시대에 맞춰 다양한 식문화를 이해하고 체험해 보는 시간을 갖으며, 더불어 오케스트라의 연주와 함께 분위기 있는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의 품격을 갖춘 관기초등학교를 찾았다.

관기초등학교 급식은 이혜경 영양교사가 단체급식이지만 한 달에 한 번은 식사품격을 상승시키는 효과를 기대하며 진행하고 있는 관기레스토랑이 있다. 다른 나라의 음식을 경험하고 관기오케스트라의 음악과 함께 품격 있는 식사를 하는 것이다.

관기초에서 공모한 사업은 2017년~2019년-바른 식생활 교육학교 2016~2018-살중식 식생활교육학교 등이 있으며 작년에 '2018. 바른 식생활교육학교 전국 최우수 학교'에 선정되기도 했다.

특히 2017년부터 3년간 꾸준히 식생활 개선 사업을 진행했다. '환경, 건강, 배려'를 실천하는 바른 식생활 교육을 위해 학교 급식과 연계해 가정, 학교, 지역사회가 함께한 연계교육이다. 이혜경영양교사는 “식생활교육은 가정과 연계가 잘 이뤄져야 교육의 효과가 높게 나타난다. 학부모님들의 참여로 이루어진 교육공동체 연계 프로그램으로 체소과일의 날 운영, 체소가득 가족밥상 사진 공모전, 가족과 함께하는 쌀요리 체험 행사, 아침밥 먹기 캠페인 등을 지도 추진했다.”고 말했다.

관기초는 음식물쓰레기 삼행

시와 포어 공모전 같은 '그린데이' 활동을 통해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는 효과를 이루기도 했다.

그린데이 행사기간 음식물쓰레기를 기존의 30%인 5kg 이하 줄이기를 목표로 진행하였으며, 메뉴의 따라 1kg~3kg정도로 목표치 보다 더 많은 감량을 했다 고 한다.

이날은 1학기 마지막 관기레스토랑으로 관기초 오케스트라 단원 16명의 연주와 함께 식사를 했다.

연주곡은 알라딘 os 의 두 곡의 연주가 있었다. 곡 선정과 연습 등은 악장을 선두로 학생들이 직접 선정한다고 한다. 음악이 흐르는 관기레스토랑은 이해하여 2019년 현재까지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다.

이교사는 “글로벌시대에 맞춰 다양한 식문화를 이해하고 체험해 보는 시간을 갖으며, 더불어 관기의 자랑인 오케스트라의 연주와 함께 분위기 있는 식사를 제공함으로써 급식의 품격 및 학생 개인의 식사품격을 상승시키는 효과를 기대하며 진행하고 있다.” 라는 취지를 밝혔다.

어린 학생들이 싫어하는 식재료를 어떻게 요리하면 좋은지 묻는 질문에 “물레 감춘다”라고 답하고 학생들의 입맛에 귀를 기울여 이혜경 영양교사는 “식생활교육의 효과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식생활교육 커

리큘럼과 지속적인 예산지원, 교육을 실시하는 교육주체의 전문성향양을 위한 연수 등이 이루어져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하며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교육과 습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관기초 소속교장은 “한 달에 한 번 다른 나라의 음식을 급식이지만 좀더 색다른 분위기를 연출하려고 노력하고 연구하는 영양사교사와 급식 담당 여사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건강한 식생활의 기본을 준수하는 마음 잊지 않겠다.” 라고 말했다.

최항민기자

여수 밤바다 여행은 미남크루즈~ 여수 관광의 새로운 메카로 여수바다여행을 책임진다



초대석

임규성

미남크루즈 대표



여명학교를 다니는 막내 현호 지적장애 3급이지만 그 학교에서 우등생이고 천재라며 활하게 웃는 임규성 대표. 꿈을 버리지 않는다면 언젠가는 현실이 될 수 있다. 서로 힘을 모아 모든 장애인들과 어울려 살아가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아주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이라는 미남크루즈 임규성 대표와의 일문일답이다.

지역 내 사회적 약자 층을 위해 특히 지적장애인들을 위한 복지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고 들었다. -미력하나마 힘을 보태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지적장애나 발달장애를 갖고 있는 층에 관심이 많다. 막내아들이 지적장애를 갖고 있다. 학교 또 주변의 시설과 관심 등이 미흡하여 아쉽다. 주위의 사랑과 배려가 있다면 그 정도에 따라 아주 밝고 정상적인

생활에 근접해 나갈 수 있는 희망이 있다. 장애의 정도가 심해져 희망이 갈수록 없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그 아이들도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귀한 생명이라는 것을 알아주면 좋겠다.

여명학교 학부모로서 하고픈 말씀이 있다면?

-올해 초까지 여명학교 운영위원장을 3년간 맡아 오면서 불가능이라고 방치했던 것도 우리의 관심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되었다. 꿈을 버리지 않는다면 언젠가는 현실이 될 수 있다. 서로 힘을 모아 모든 장애인들도 어울려 살아가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아주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그러나 현실은 열악하고 녹록하지 않다. 한국 장애인부모연합회 여수지부 부회장을 하면서 현실의 벽을 느낀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는다. 앞으로 힘이 닿는 한 재능기부 뿐만 아니라 금전적인 후원을 많이 하려고 한다.

장애인 단체나, 지역아동센터, 지역 어르신, 입양아 등 요청이 들어오거나 때로는 권유를 해서 미남크루즈 무료승선을 시켜드리고 있다. 앞으로는 더 많은 일들을 해나가고 싶다.

미남크루즈는 일반 해상투어부터 야경투어까지 여수의 바다 여행을 책임지고 있다.

-미남크루즈는 2009년 국내조선기술로 건조한 국내최대 규모의 연안크루즈다. 최첨단 안전 및 응급의료장비를 갖추고 있으며 승무원들이 인명구조 및 비상대응 안전교육을 이수하고 있다. 무엇보다 승객 여러분의 편안하고 안전한 여행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 1,100명 탑승이 가능하고 내부에는 넓은 휴게식당, 매점 등의 편의시설이 있고 꼭대기 층은 포토존을 마련해 왔다. 여수의 아름다운 야경을 가장 멋지게 즐길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여수 온지는 얼마나 됐나?

-8년차다. 처음엔 여수거복선호로 바

다 사업 한다고 서울에서 무작정 내려왔다. 그 때는 혼자 왔었고 지금은 가족들이 모두 여수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여수에서 살 것이다.

거복선호는 국비시비 44억원으로 2010년에 만들었다. 그런데 그 때는 운영할 사람이 없어 1년을 돌산유람선 선착장에 묶여 방치되고 있었다. 내가 여수시와 msi를 체결하여 민간 운영자로 선정되어 거복선호가 첫 고동을 울리게 된 것이다.

이 때 여수 밤바다 야경투어를 기획하였고 점차 증가 추세에 있는 해양레저 수요에 대처하고 2012여수세계박람회의 성공개최에 기여할 수 있었다.

여수의 아름다운 바다관광을 선도하면서 여수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했으며 지역 관광활성화에도 기여했다.

하지만 2015년 거복선호가 성공하자 객지에서 온 나에게 시비국비로 제작한 거복선호를 운영하게 할 수 없다는 일부인들의 지역여론조성에 부딪혔다. 특정업체 선정이라는 논란도 있었지만 결국 거복선호를 빼앗겼다.

분하고 억울하여 지금의 미남크루즈를 거복선호를 빼앗기는 그 해 5월에 사왔다.

선내 관광방송을 직접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선내 방송을 한지 8년째다. 야간 운항 시에는 직접 승선하여 승객분들에게 안내 멘트를 하고 있다. 야간 운항 시간장남을 비롯하여 선원들은 예민하다. 승객들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인터넷을 검색하여 항로상 있는 것들을 적어서 안내했다. 여수를 좀 더 자세히 공부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자 이순신아카데미에 가서 공부도 하고 지역을 잘 아시는 분들에게 듣고 내용을 정리해서 안내하고 있다. 오동도, 오동도 방파제, 오동도 등대, 여수신항의 역사, 하멜등대, 진남관, 고소동 벽화마을, 거복선, 장군도, 거복선대교, 돌산대교 등을 소개 하는데 이 중에서도 이순신장군과 거복선의 역사와 활약상에 대해 더 관광객 분들에게 알려드



리려 노력하고 있다. 다녀가신 분들의 후기가 대체로 좋아 보람을 느끼고 있다.

여수거복선호를 다시 운영하게 되었다. 운영준비에 비빌 것 같다.

-거복선호는 내가 2012년 여수에 오게 된 계기가 된 선박이다.

2012년부터 2015년 5월까지 운영했다가 4년 정도는 다른 선사가 운영했다. 2019년 7월에 운영사로 선정되어 다시 거복선호를 운영하게 되었다. 감회가 새롭다.

여수거복선호는 국비, 도비 등이 투입되어 여수의 관광발전과 전라좌수영과 거복선을 널리 알리고자 만들어졌기 때문에 취지에 부합되게 운영하려고 준비 중에 있다.

일단은 국내 유치원부터 고등학생 대상으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려 한다. 거복선에 승선하여 역사 체험, 직업 체험, 안전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미 미남크루즈를 통해 해오던 것을 거복선호를 이용하여 더 체계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이순신장군에 대한 시청각



교육과 장군복 입어보는 체험 등도 추가할 계획이다. 수학여행이나 학교 체험 교육은 주로 평일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주중 관광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본다.

여수 관광객이 줄어들고 있다. 여행지를 고민하는 여행객에게 한마디 한다면?

-작년 대비 20% 줄어든 것은 사실이다. 평일에도 항상 매진이 되었는데 지

금은 금, 토만 매진이 되고 있다. 하지만 8월이니 관광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여수는 여전히 여름 국내 휴가지로 인기가 많다. 아름다운 바다와 분위기 좋은 야경, 맛집이 즐비한 여행지다.

자연을 느끼며 걸기 좋은 해안가 비렁길도 있고 아름답고 멋진 미남크루즈가 있기에 최고의 국내 여행지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최현란 기자



제21회 1,600만 고료 여수해양문학상 작품공모

1. 공모기간 2019년 5월 ~ 2019년 9월 20일(마감일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
2. 응모자격 기성, 신인 구분없이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20세 이상의 성인
3. 공모부문 및 분량 시 : 5편이상(연작시는 편수와 무관) 소설 : 200자 원고지 100매 이상
4. 응모요령
 - 1) 소재는 시민과 함께 하는 해양관광 휴양도시 여수의 아름다운 바다와 섬, 삶에 대한 성찰과 미래비전이 제시된 작품과 신해양 시대를 맞아 해양에 대한 건강한 문학적 시선과 인식이 제시된 작품이어야 함.
 - 2) 작품은 반드시 A4용지에 출력하여 각 2부씩 제출할 것.
 - 3) 우편으로만 접수하며 겹봉투에 '여수해양문학상 응모작'임을 명시할 것.
 - 4) 응모작 맨 앞장 별지에 응모부문, 작품제목, 주소, 전화번호, 이름을 명시하고 작품에는 이름을 기재하지 말 것.
 - 5) 당선작은 작품집으로 발간하며 모든 저작권은 5년간 여수시가 보유하며 그 이후는 작가에게 귀속, 단 당선작은 여수시 홍보에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음.
 - 6) 응모작품은 반환하지 않으며 표절 또는 발표한 작품일 경우 당선을 취소함.
5. 심사 여수해양문학상 운영위원회에서 위촉한 심사위원
6. 발표 10월 중순 이후 개별통지(당선자에 한함)
7. 시상내역 대상(시, 소설) 각 1명 500만원, 우수상(시, 소설) 각 1명 200만원, 가작(시, 소설) 각 1명 100만원 (시상은 11월 중순 여수진남문예회관에서 진행 예정)
8. 원고 접수처 전남 여수시 여서1로 108 (3층, 여서동) (사)한국문인협회여수지부 여수해양문학상 담당자 ☎ (061) 651-0584, 010-6807-8457

지역예술문화의 자원화를 위한 전제

신병은의 문화예술칼럼 신병은(시인)

미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도시 오스틴의 성장비결은 사람을 끌어당길 만큼 매력적이고 훌륭한 문화를 갖고 있다는 것이다.

오스틴페스티벌, 시낭송을 위한 오스틴 포에트리 슬램(Austin Poetry Slam), 아트 페어, 라이브음악 창작공간 등의 문화적 환경 조성 등 선진 문화생태 도시로 자리하고 있다. 결과 오스틴의 창조경제는 활력이 넘쳐며 경기침체 기간에도 25%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오스틴 문화코드인 음악, 예술, 창의성, 호기심이 창조경제의 비결이라 했다.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에서 미디어아트분야 창의 도시로 선정되기도 했다.

전시, 공연, 문학, 디자인, 요리... 이 모든 것은 일상의 스트레스를 날리고 도시를 아름답게 만들어 주며, 즐거움을 주며, 영혼을 풍요롭게 해줄 뿐만 아니라, 역사와 유산에 관심을 끌게 해주고, 사람들을 한데 모으는 역할을 한다.

문화예술이 지닌 가치창조를 강조하고 있다.

물론 최우선 과제는 교육, 음식, 건강, 주택, 교통이지만 문화예술은 이러한 요소 하나하나와 통합되어야 한다. 문화예술은 그 도시의 시책목표가 아니라 시민의 삶과 삶의 질과 관련된 모든 요소에 통합되어 있어야 한다.

문화예술은 지식경제로 전환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 도시의 미래경쟁력을 준비하고 시민들을 통합하는 핵심적인 요소다.

2014년 지역문화진흥법이 제정되었고, 그에 따른 시행령도 2016년에 제정되어 지역실정에 맞게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을 5년마다 수립, 시행, 평가하게 되었다.

그에 맞춰 2016년 9월에 우리시도 문화예술비전 5개년계획도 마련된 것으로 알고 있다. 추진이 곧 자원화다.

1. 예술문화의 자원화를 위한 키워드

정확한 예측을 위한 몇 가지 키워드와 발문이 지역문화예술의 비전을 제시하는 담론이 되었으면 좋겠다.

지역예술문화의 비전이란 말과 함께 두서없이 떠오른 생각을 나열해 보면 얼핏 다음과 같다.

- ☞ 예술문화로 행복한 지역문화융성
- ☞ 도시생존전략 비전으로써의 문화예술
- ☞ 지역을 재발견하는 장으로써의 문화예술
- ☞ 문화예술의 브랜드화
- ☞ 함께 누리는 문화예술의 발효법, 문화예술의 사회적 공헌
- ☞ 뮤지컬, 오페라, 전시회를 위한 메세나운동 전개
- ☞ 문화사랑방 운영

- ☞ 비전(여수, 반성과 전망을 위한 심포지엄개최)
- ☞ 큰 예술인 키우기 프로젝트 예술영재, 지역예술인 재발견 및 재평가
- ☞ 전통예술의 발굴 및 창조적 계승
- ☞ 섬문화의 발굴과 수집 스토리텔링
- ☞ 여수의 노래 고려가요 '동동'의 문화비 건립 및 복제작
- ☞ 신화, 전설, 민담의 재발견과 스토리텔링 및 문화콘텐츠화
- ☞ 지역문화 창조 플랫폼 구축(공간, 인력, 콘텐츠의 민남)

II. 지역문화예술의 현주소

문화예술은 창조도시의 키워드이고 도시생태빈도측정의 기준축도가 되고 있다. 살아 숨 쉬는 도시는 무엇보다 문화예술이 살아있는 도시다.

우리 여수의 성공케이스를 보면 '여수 밤바다 낭만버스킹'의 추진이다. 이 사업은 버스커버스커의 노래 '여수밤바다'라는 노래 한곡에서 출발한다.

문화예술의 현재가 그 도시의 현주소가 되고 문화예술비전이 결국 지역의 비전으로 이어지고 있다.

문화예술의 비전은 통섭의 개념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다. 단일 항목 하나만 볼 것이 아니라, 경제와 사회, 시민의 삶의 성숙도와 통합적 안목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

여수시 공연 및 전시관 현황

가. 공연시설 : 예술마루, 시민회관, 전남문화회관, 여수문화홀, 엑스포홀, 전남학생교육문화회관 공연장.

나. 전시시설 : 예술마루 전시실, 예술의 섬 장소 전시실, 전남문화회관 전시실, 엑스포 아트갤러리, 달빛갤러리, 전남대국악아트센터, 전남학생문화회관 전시실

다. 사설전시실 : 여수미술관, 노마드갤러리, 아트볼트갤러리, 기타 야외공연장

이순신광장, 종포해양공원, 여수밤바다 버스킹무대, 소호동풍다리, 거북선공원, 이순신 공원, 국동수변공원, 용천진수공원, 세계박람회장, 성산공원, 미관광장, 오동도공연장 등

여수시문화예술 예산 - 우리시 예산대비 1.66%

2017년 20,401백만원, 2018년 20,271백만원, 2019년 28,578백만원

여수문화예술 단체 및 주요인물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여수지회, 민중예술인총연합회여수지부, 여수문화원, 문학 : 한국문인협회여수지부, 민중총동맹위원회, 한국작가협회여수지부, 갈무리문화회, 여수수필문화회, 화요문화회,

박기동, 김정수, 박보은, 여지랑, 김자환, 김종안, 이성관, 임병식 미술 : 한국미술협회여수지부, 민중미술인협회여수지부, 토상회, 여수청년미술작가회, 여수여성작가회, 불화우회, 여주회, 중앙미전, 여수미술사랑협회 김홍식, 배동신, 유경재, 손상기, 허영만, 고형석, 백우현, 신승우, 임영기, 정우종, 강종래, 강종연 사진 : 한국사진작가협회여수지부, 민예총사진위원회, 프로사진작가협회, 빛사랑, 포커스, 여수다카동우회 배병우, 민병태, 신근호, 장기철, 한창호

국악 : 시립국악단, 한국국악협회여수지부, 민예총국악위원회 정홍수, 김향순

음악 : 시립합창단, 한국음악협회여수지부, 민예총음악위원회, 합창단 30여 팀 장정익, 김홍호, 김갑, 지정익, 김순신,



김소진, 문지영, 이성경, 강병원 연극 : 한국연극협회여수지부, 민예총국악위원회, 극단 파도소리

박노식, 백일섭, 권진영, 지성, 도희, 김아라, 장유정 연예 : 한국연예예술인협회여수지부, 연예예술단, 한국가수협회여수지부 주병선, 김미려, 현아

여수의 문화예술 자원화를 위한 과제

- ☞ 설화의 스토리텔링
- ☞ 전설-오동도 전설, 용굴전설, 향일암, 종고산(무음산), 호암산 범바위 등 66편 민담-소금장사이야기, 방구쟁이 떠느리, 귀뚜새와 두견새 등 28편
- ☞ 고려가요 <동동>(장승포곡)의 재현 및 축제화(노래비 건립)
- ☞ 역사 속 문화예술인 조명 이수관, 이덕형, 이순신, 김유, 김윤식, 오형욱
- ☞ 승전문화의 재발견 및 창조적 계승
- ☞ 진해투정장회의 축제 군정 수군출정식 승전무(강강술래)
- ☞ 전통문화예술 재정립
- ☞ 현천소동패놀이, 거문도뱃노래, 상문살

곳, 영당풍어굿, 독제, 용천제

- ☞ 오페라 '귀향' 전통가무악극 '오돌레' 격년제 공연
- ☞ 손상기, 김홍식, 배동신 상설관을 함께 갖춘 여수시립미술관 건립
- ☞ 버스커의 도시를 위한 버스커학교 및 창작공간 확충
- ☞ 버스커 버스커의 노랫말에 나온 밤바다의 고요와 적막이 감도는 원형성 복원과

여수밤바다의 명품화를 위한 터닝포인트 마련 (시민참여형 프로그램 개발작용)

- ☞ 박기동, 김정수, 박보은 등 문인들의 기념관을 갖춘 여수문화관 건립
- ☞ 지역문화예술인 재평가 및 조명

이밖에 여수와 관계있는 문화예술인, 혹은 관련 자료 활용한다.

즉 김홍의 칼의 노래, 한강의 여수의 사랑, 정희성시인 등의 소설과 시를 활용한 콘텐츠 개발도 필요할 것이다. <시로 읽는 여수> <여수, 섬에 불똥> 등의 시집처럼 <여수의 종횡> 사진 정리, 대중가요 정리 등이 필요하다.

우리 여수는 이렇게 많은 인적 자원을 확보하고 있음에도 그 자원을 활용하는 콘텐츠개발은 미약하기 그지없다. 김홍식, 배동신, 손상기 등 한국서양화 1세대인인 고형이면서 아직 변변한 전시관 하나 갖지 못하고 있다.

다행히 국내 최고의 문화예술센터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예술마루와 예술의 섬 장도가 개관함으로써 지역문화예술의 위상과 자존을 챙기고 있지만, 시립미술관과 문화관 건립을 위한 고민이 하루속히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어렵다면 작은 미술관, 작은 문화관도 만드는 것 또한 대안이 될 수 있다.

오늘날은 대형 공간보다는 작은 문화공간, 썬디문화공간이 대세다. 크게 만들어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것 보다는 도심 곳곳에 작으면서 알찬 문화공간 연출이 필요하다.

섬지문화공간의 확충

우리는 공간 그 자체가 생각이 되는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간의 개념이 주요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이전의 미술관, 공연장이 아니라 골목으로, 광장으로, 지하철로, 거리로 이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좁고 연극이 지하철로 광장으로 나가고, 미술관이 거리로 골목으로 나가고 있는 추세다.

좀 더 삶의 현장 가까이 가고자 하는 것이다.

그래서 썬디문화공간의 확충이 대세다. 접근성이 좋은 썬디공간은 대다수 시민들이 누릴 수 있는 생활공간 속의 예술공간이다. 넓은 것을 만들자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공간을 재구성하고 편입하여 새로운 공간을 모색하는 일이다.

☞ 예술의 섬 장소 명품화 숨어있는



그림 찾기 이벤트

- ☞ 골목갤러리, 뽀뽀한 갤러리, 동화화가 있는 갤러리,
- ☞ 달빛갤러리와 같은 공간연출
- ☞ 소장품 전시(김탁경, 유동명 등)
- ☞ 아파트 101동 101호 갤러리와
- ☞ 시청로비 등 공공기관의 복합예술 공간으로 연출
- ☞ 시가 있는 장독대 조성
- ☞ 형설해방, 선미당 등을 활용한 문화프리마켓

지역예술인의 재발견 및 재평가

예술의 성장은 알고 보면 재발견의 힘이다.

재발견은 없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을 어떻게 다르게 보느냐 하는 문제이면서

어떻게 활용하느냐의 문제다.

여기에는 출현예술인의 재발견, 지역예술인 재발견, 그리고 문화컨텐츠의 재발견이 해당된다.

출현예술인 재발견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김홍식, 허영만, 배동신, 손상기, 김경수 등의 예술인에 대한 재발견은 많이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가시적인 성과가 하나 둘 나타날 것으로 기대되지만, 그에 못지않게 지역예술인의 재발견, 재평가가 하루속히 이루어져야 한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묵묵히 한평생을 바쳐 지역예술문화의 중심에서 그 역할을 해온 예술인에 대한 재평가 필요하다. 우리지역 예술인의 현주소를 파악하여 제대로 자리매김해 두는 것이 알고 보면 우리시의 성장을 위한 소중한 인적 자산이기 때문이다.

우리지역에서 활동하시다 작고하신 예술인과 현재 활동하고 있는 예술인 중에서 자리매김이 되어야 할 분들이 많다.

이 분들에 대한 평가와 지원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 하나는 여수와 관계하고 있는 문화예술인, 혹은 관련 컨텐츠를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언젠가 '문학 속의 여수'를 정리한 적이 있는데 그때 우리나라 유명 시, 소설에 여수가 들어있다는 것에 놀랐다. 신석정 시, 김동리 소설 '역마', 김홍의 칼의 노래, 한강의 여수의 사랑, 정희성, 고은, 유안진, 신달자, 이생진 시인 등의 소설과 시를 활용한 콘텐츠 개발도 필요할

있다.

아울러 예술영재를 발굴하여 육성 지원하는 사업도 중요하다.

피카소는 '모든 어린이는 예술가로 태어난다'고 했다.

현대는 지역의 인물은 지역에서 만들어야 하는 시대다. 그 실례로 피아니스트 문지영을 만들어낸 것이다.

문인협회가 기업과의 협업으로 매년 여수청소년 문학상을 제정 운영하고 있다.

작년의 경우 시와 소설 부문에서 공모하여 수상자 16명에게 시, 소설 대상 각각 100만원을 비롯해 600만원의 장학금이 주어졌는데, 놀라운 사실은 지역에 이처럼 우수한 문화인재가 많다는 사실에 놀랐다.

문학뿐만이 아니라 청소년음악상, 청소년국악상, 청소년미술상, 청소년연극상, 청소년 무용상 등 분야별로 확대하여 시행하여 영재를 발굴하고 지원해야 한다.

III. 마무리

이제 문화예술도 복지개념으로 접근해야 한다.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도 중요하지만, 대다수 시민을 위한 문화복지를 챙기는 것이 '행복한 시민'을 구현하는 길이 될 것이다.

예술복지와 예술인복지 진정성은 소비가 아닌 창조적 생산유발 및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중요한 요소다.

문화예술은 도시의 미래경쟁력을 준비하고 시민들을 통합하는 핵심적인 요소다.

결국 오늘날 도시가 추구하는 과제는 문화로 행복한 삶이다

오늘날 문화예술의 가치요소로는 '행복한 삶의 선순환'이다.

여수의 문화예술은 여수의 삶을 행복하게 한다.

결국 문화예술은 그 도시의 시책목표가 아니라, 시민의 삶과 삶의 질과 관련된 모든 요소에 통합되어 있다. 단일 항목 하나만 볼 것이 아니라 경제와 사회, 시민의 삶의 성숙 등과 함께 하는 통합적 안목으로 바라볼 때 문화예술의 자원화를 위한 미래예측을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이다.

결혼정보회사 웨드

웨드가 존재하는 이유

더 이상 외로워 하지 마세요!!
가장 많은 남녀 회원이 선택한 웨드가 가장 마음에 드는 이성에게로
당신을 인도하여 가장 행복한 길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왜 웨드 일까요?

- 유료회원수 전남 최다 보유로 당신과 어울리는 이성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 성혼회원수 여수 최고의 성혼율은 웨드의 자랑입니다.
- 역사와 규모 1998년 개원 이래 지난 21년간 이 지역 최대의 규모로 성장해 왔습니다.
- 전문적인 관리 다년간의 경험과 과학적인 매칭시스템으로 당신의 짝을 끝까지 책임지고 찾아드립니다.
- 개인정보보호 고객님의 개인정보를 완벽하게 보호해 드립니다.

꽃을 찾는 나비처럼
당신의 인연을 찾아드립니다.

국내결혼
wed.co.kr

국제결혼
wed.kr

등록번호-전남2008-023
신고번호-전남2008-0003

☎ 061) 683-1000

소걸음으로 천리를 가는 마음 '당당한 여수 만들기'

인터뷰

주승용 국회부의장

여수일보가 '길은 이어져야 한다' 여수-남해 해저터널 완공을 통해 동서화합 상생의 장으로 발전 시키는 것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주승용국회부의장(39일)을 만났다. 이하 내용은 주부의장의 여수를 위한 정치 인생과 무한도전 행보에 대한 인터뷰 내용이다.



▲여수비대기류유출 사건 현장

여수-남해 해저터널 가능한가?
-여수,고흥,연륙,연도교를 20년 전에 공사 한다고 했을 때, 백야화대 사업 한 다 했을 때, 10명 사는 섬에 천억, 이천억 투자하여 다리 연결하자 했을 때는 가능하다고 했는가!
대한민국을 짧은 시간 안에 발전시켰던 것이 과거 수도권 중심의 개발이었다면 여수를 발전시켰던 것은 2012여수국제박람회를 위한 SOC 구축이라고 할 수 있다. 낙후된 전라도 그 중에서도 전라도 맨 끝에 있는 여수에서 국제박람회를 개최한다는 것은 꿈같은 일이었다.
먼저 박람회장 접근을 위한 각종 SOC 구축이 시급했고 SOC 광역 도로교통망 확충에 사활을 걸어야 했다. 여수는 동아시아 최대의 화학단지라고 일컬어지는 여수국가산단이 있음에도 여수로 진입하는 교통편은 구불구불 국도 17호선이 유일했다. 원유 수송의 경우 철도를 이용하긴 했지만, 고속도로 하나 없는 여수의 현실은 어떻게 지금까지 왔을까 하는 의문이 생길 정도였다.
복선전철화는 공사에 3000억 원이 투입되는 등 대단위 SOC가 구축을 위해 시는 박람회장과 연계한 도로망 확충에 지방채를 발행하기도 했다. 한꺼번에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교통량의 분선과 원활한 흐름을 위해서는 시내 도로망의 확충이 절실하기 때문이다. 당초 국비 지원을 받기 위해 대정부 건의 등에 힘썼지만 지방

도라는 특성 탓에 국비 지원은 어려웠다. 지금의 여수는 전체의 관광자원과 2012년 세계박람회 개최도시로서 특수를 바탕으로 '국제적인 해양관광 휴양레저수도' 건설에 중점을 두고 활기찬 관광정책을 펼치고 있다. 국회에서 건설교통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소속돼 여수권역 SOC확충 예산 확보에 총력을 다할 수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본다.
여수-남해 해저터널도 불가능하다고 치부할 일이 아니다. 여수-남해만 연결되면 모든 길이 여수로 연결되는 것이다. 금년 정기국회 때 예산을 확정시키는 것을 1차 목표로 여수가 동서, 좌우로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기여하겠다.
2012년 이후 관광객 1300만이 찾는 빛의 도시 여수가 되었다.
내가 2000년에 돌산대교 경관 조명을 했을 때 그때는 우리나라 최초였다. 돌산대교 다리에 LED로 불쎄다고 하니

미친놈이라고 했다. 지금의 빛의 도시 여수가 될 수 있었던 원동력 여수의 대표 관광 콘텐츠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것이다. 이십년이 지난 지금은 우리나라 모든 다리에 야경을 조명하고 있다.
그때 당시 행자부에서15억원을 예산으로 받아와서 7억을 여수 조명으로 썼다. 진남관 조명을 4천만원 나머지로 돌산대교 조명시설설치를 했다. 10년이 지났고 이번엔 돌산대교 조명을 재설치 한다.
여수에 관광객이 머물러 하려면 호텔 같은 숙박시설이 들어와야 하는데 투자하는 곳이 없었다. 문선명씨를 붙잡고 여수가 앞으로 엄청나게 발전할 곳이라고 설득하여 지금의 콘도와 호텔이 지어졌고 그 후로 많은 숙박시설이 들어왔다.
여수 향일암은 우리나라 4대 관음기도 처 중 하나다. 향일암 일출제를 만들어서 1996년에 해넘이,해맞이 명소를 만들었다. 전남 도의원으로 시직해서 여천군수, 여수시장, 국회의원4선까지 30여년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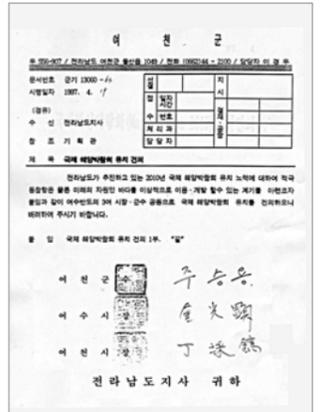
▲39일 여수일보와의 인터뷰 사진

역민들과 함께 힘을 합쳐 노력했던 결과가 10년 20년이 지난 지금 빛의 도시 여수, 1300만 관광의 시대를 열수 있었다. 무한 잠재력을 지닌 여수, 천혜의 자연 축복의 땅 여수는 우리나라의 발전 해양강국으로서 한국의 이미지를 각인시키고 남해안 중소도시 여수를 세계 속의 일류 도시로 견인해내는 매우 중요한 일을 할 것이라고 믿는다.

남태평양 빙탄식수화사업 추진을 위한 외교활동은 어떤 것인가
-8월10일부터 18일 까지 6~9일의 일정이 잡혀있다. 유엔지속가능 개발목표 중 여섯번째 목표인 물과 위생에 관하여 남태평양국가들의 정상급 인사들과 논의를 하고 우리나라 물관련 기술을 교류하고 빙탄식수시설설치를 지원하고 올 예정이다.

또한 74주년 광복절을 기념하여 제2차 세계대전 시에 솔로몬 헨더슨 비행장에 투입되었던 한국인 강제징용 희생자에 대한 추모식 행사를 개최하고 올 예정이다.
우리나라도 영산강 유역 등 전국의 유역을 통합한 물관리가 시급하다. 환경부, 국토부, 농림부, 행안부로 분산되어 있는 물관리를 통합하여 지속가능한 물순환과 기후변화 대응의 전략을 세워야한다. 21세기는 물전쟁 시대가 될 것이다.

여수국가산단 대기오염물질 배출농도 조사사건에 대한 조사가 국회 차원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
-일명 '짬뽕이' 셀프조사사건은 올해 최고의 큰 환경사건이다. 이번 조사사건에 대한 대기업의 도덕적 해이와 관리감독의 주체인 정부의 관리소홀이 근본 원인이다. 중요한 것은 대기업이 앞으로 지역에 대하여 어떻게 할 것인가, 법으로 어떻게 개정을 할 것이냐가 관건이고 이 문제를 국회차원 국정에서 다뤄질 것이다.
여수지역구 의원으로서 책임감 가지고 두 번 다시는 '짬뽕이'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한 조사와 징벌이 따르도록 하겠다.
현재 법개정 작업 중인데 정기국회 때 우선 언급조차라도 해야하기에 서둘러 법개정 착수에 들어갔다. 현행제도는 오염물질 농도를 측정받는 기업이 측정대행업체를 직접 선정하는 구조로 측정대행업체가 '알이 되고 측정받는 기업이 오히려' 감이 되어 있다. 대기오염물질 조사를 하는 근본적인 대책을 위해 업체선정 및 대금지급을 기업이 아닌 공공기관, 정부, 또는 지자체가 직접하도록 하여 지자체가 관리감독 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했다.



▲1997년 군수시절 2010년 국제해양박람회유치 건의 공문



▲제1회 향일암 일출제



▲여수를 알리기 위해 시장시절 만든 여수해일문헌상

이번 10월쯤 국정감사에 대기업 회장들이 줄줄히 소환 당할 것이니 백배사죄하고 스스로 자구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30여년 정치인생 어떤 길이었는가.
-소걸음으로 천리를 가다라는 마음으로 30년 정치 인생을 살았다. 30년 정치 인생에 즐거움만 있었겠는가. 무수한 시련을 시,도민과 함께 해왔다. 대회는 상대가 납득할 때까지 했고, 때로는 장엄한 폭포와 같은 용기를 냈으며 막히면 돌아가는 지혜와 인내와 끈기를 잃지 않으려 했다. 그리고 유유히 바다로 흐르는 '대의'가 삶의 지표다. 무한도전, '당당한 여수'를 만드는 길을 시,도민과 함께 묵묵히 함께 걸을 것이다. 최한탄기자. 사진 김영주기자

가장 저렴하고, 빠른 전속계약 전문 <http://www.korea7942.com>

건물/토지/주택
분양/임대
부동산 컨설팅 및 개발
맞춤형 투자전략

주식회사 부동산중개법인

대한

등록번호 제46130-2016-00011호 주소 전남 여수시 여서동 7길 18 TEL 061)681-7477